

# 서원향사



書院享祀  
무성서원



# 서원향사



書院亭記  
우암서원 월암서원

## 알려두기

1.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화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서원·향교에 대한 현지조사와 영상기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무성서원》(2012년), 《필암서원》(2010년)에 대한 현지조사 내용입니다.
2. 서원·향교 제례 동영상과 보고서는 임원총회, 제례준비, 제례(분향례, 석전, 향사) 등 제례를 위해 수반되는 전 과정을 수록하여 유교제례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동영상과 보고서 원문(PDF)은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rich.go.kr](http://www.nrich.go.kr))에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 이 보고서는 크게 역사, 제례, 운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성서원》은 김경선(제례)·이해준(역사)·이명진(운영), 《필암서원》은 김희태(역사)·최순권(제례)·안경희(운영)가 집필하였습니다.

## 발간사

서원書院은 지역별 학문 전통 기반 위에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으로서 학문 발전과 지역 여론을 형성하던 곳입니다. 서원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조선 유학 전통을 확립하는데 토대가 되었습니다. 학문을 연구하고 후학을 배출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제정한 향약을 통해 풍속을 교화하였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성장하여 중앙에 맞서는 지역 세력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서원은 유교 문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통문화를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 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소는 2008년부터 서원향사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의 영상기록과 함께 현지 조사한 무성서원과 필암서원의 향사를 《서원향사(무성서원·필암서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무성서원은 신라 때의 인물인 고운 최치원을 비롯하여 모두 일곱 분의 인물을 배향하고 있는 유서 깊은 서원이며, 필암서원은 많은 시문과 저술을 남기고 '하서체'라는 독특한 서체를 창안하여 오늘날 호남 서예의 주류를 형성한 하서 김인후를 모신 서원입니다. 두 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 때 전라 지역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서원이자, 호남 의병의 주요 거점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서원에서 지내는 제사를 중심으로 서원의 조직과 운영, 사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서원이 전통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모습으로 여전히 기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 유림들이 힘을 모아 새로운 유학 전통을 만들었듯이, 이 보고서가 향후 우리 전통을 새롭게 창조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3년 6월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장 김 영 원



# 目次

## 009 I. 무성서원 향사

### 011 1. 무성서원의 역사

- 1) 최치원의 생사당과 태산사
- 2) 태산서원의 건립
- 3) 무성서원의 사액과 연액의절
- 4) 무성서원의 원규와 강습례
- 5) 무성서원과 고운 최치원
- 6) 한말에 다시 부흥하는 무성서원

### 7) 무성서원의 입지와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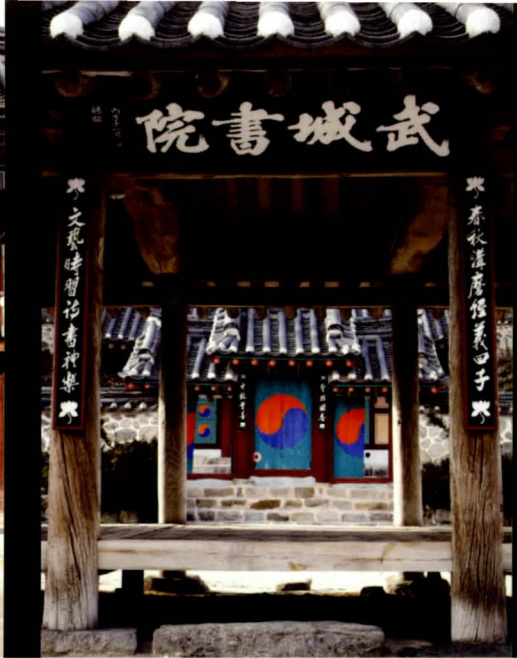
### 8) 무성서원의 제향인물

### 047 2. 무성서원의 향사

#### 1) 향사享祀

#### 2)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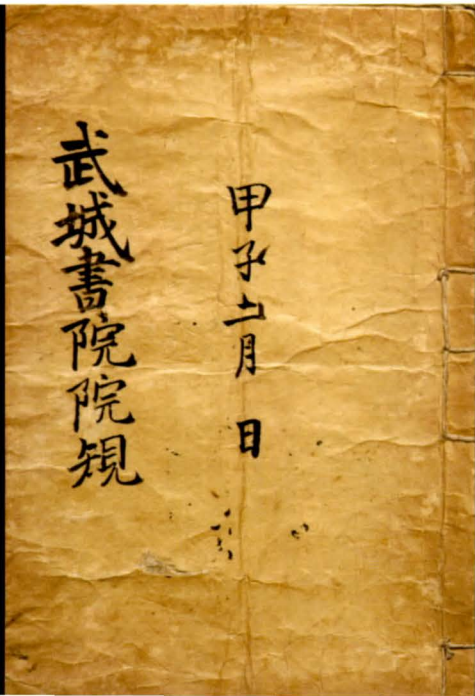


### 095 3. 무성서원 향사의 특징

### 099 4. 무성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운영과 조직
- 2) 전승과 지속

### 115 무성서원 흥기







I  
—●—  
무성서원향사



# 1. 무성서원의 역사

## 1) 최치원의 생사당과 태산사

### (1) 최치원崔致遠과 태인泰仁

무성서원의 건립은 고운 최치원崔致遠, 857~?의 생사당生祠堂에서 비롯되었다. 최치원은 통일 신라 정강왕 때 태산泰山 군수로 부임하여 태인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재임 기간 동안 태인에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피향정披香亭과 유상대流觴臺였다.

보물 제 289호로 지정된 태인의 피향정(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102-2)은 '호남에서 제일가는 정자'로 일컬어지는 대표적 명소이다. 피향정은 최치원이 태산군수로 재임 중에 풍월을 읊으며 거닐던 연못가에 세워진 정자로 전해지는데 창건연대는 분명치 않다. 이 피향정에는 점필재 김종직·석천 임억령·청음 김상헌·기암 정홍명·문곡 김수항 등 저명인사들의 제영題詠이 전해오고 있다. 정면 5칸, 측면 5칸의 누각으로 기둥이 30개가 되어야 하는데 중앙의 2개를 세우지 않고 28개를 세웠으니 이는 우주의 28숙[별]을 따른 것이라 한다.

유상대는 최치원이 검단대사翫丹大師와 더불어 흐르는 물에 술잔을 띄우고 시를 짓는 '유상곡수流觴曲水의 풍류'를 즐겼다고 전해지는 유적이다. 조지겸趙持謙, 1635~1685이 지은 유상대비流觴臺碑가 전해진다.

당시 태인 고을 사람들은 최치원이 태산태수로 부임하여 군민을 교화한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유풍을 백세토록 전하고자 월연대(현재 무성리 성황산 서쪽 능선)에 생사당을 지어 모셨다고 전한다. 하지만 월연대 아래의 생사당은 고려 말에 폐지되어, 그 상세한 내력이나 유적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시대에는 지역마다 인물신이 지역신[성황신]으로 모셔졌는데, 최치원도 그런 사례의 하나로 숭앙되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 (2) 정극인丁克仁의 향학당과 태산사

최치원의 생사당은 조선조에 들어와 유교문화가 점차 정착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즉 생사당을 1483년(성종 14)에 불우헌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이 건립한 향학당鄕學堂의 자리로 옮기고, 이름도 태인의 옛 지명을 따라 '태산사泰山祠'로 바꾸었다. 현재 무성서원이 자리한 곳이 바로 이 때의 위치이다.

정극인이 시행하였던 태인 고현동향약(정읍시 칠보면 시산리 930-2)은 우리나라 향약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료이다. 고현동향약은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과 율



태산사 泰山祠 전경

곡 이이栗谷 李珣, 1536~1584의 향약보다도 90여 년이나 앞선 조선 초기 향약 시행의 선례이며, 17~18세기에 일반화되는 동계·동약의 모델로 발전한 주목되는 자료이다. 고현동향약은 400년 동안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운영 모습을 전하는 문서자료가 『고현동향약 좌목古縣洞約座目』, 『태인향약안泰仁鄉約案』, 『고현동약안古縣洞約案』, 『고현동각수안古縣洞閣修案』, 『고현향약규례古縣鄉約規例』, 『고현동약지古縣洞約誌』, 『태산고현동비문泰山古縣洞碑文』 등 29여 책이 온전하게 남아 보물 제 1181호로 지정되어 있다.

정극인이 태인에 학당을 세워 전개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자세히 논하기 어렵다. 다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1469년(예종 1) 태인현의 훈도로 재직할 때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학령學令」이 남아 있어 그의 교육관을 엿볼 수가 있다. 『불우헌집』에 실려 있는 「학령」을 살펴 보면 우선 ‘해가 이미 바뀌었으니 학당의 학령 또한 고쳐야

逸豫怠惰。茅塞良心。則是自求學也。嗚呼。若等其思之。詳味及字可也。呂舍人曰。指引者。師之功也。行有不至。從容規戒者。朋友之任也。決意而往。則須用已力。難仰他人矣。嗚呼。若等其思之。詳味往字可也。嗚呼。聽用我謨者。誰歟。哀如充耳者。誰歟。

學令 訓導教授時

夫所以讀書學問者。本欲開心明目。利於行耳。諸生有志于學問者乎。王公大人之子弟。公卿將相之弟姪。何事不足。自古及今。皆入于學校。以成就其德。既入于學。則無貴無賤。無貧無富。一遵師友之規責。可

不憂軒集 卷二

也。諸生年既壯而學無成。以鄉吏無知之眼觀之。則皆有面目手足。孰不謂之人乎。以聖賢之言度之。則真所謂馬牛而襟裾。雖曰有人之形。其實何異於禽獸也。歲既改矣。學堂之令。亦當改之。日役不誦者。楚五十。舊讀不誦者。楚六十。博奕雜戲者。楚七十。不從規責者。楚八十。乘間學射者。楚九十。貪從女色者。楚一百。皆以竹枝楚罰之。諸生度才量力。可以從之。則在學。不可以從之。則出學。可也。遊吾門者。皆於紙尾親着名署。以憑後考。着名之後。如有犯法者。雖氣槩豪邁。蔑視師友。吾當剛制矣。諸生毋以謾令刻期。爲

정극인의 「불우헌집」에 수록된 「학령」

마땅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전에 시행하던 「학령」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가 1455년(세조 1)에 전주부의 교수로 재직하다 시작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애초의 「학령」은 그의 나이 50대 중반부터 작성하여 시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이 「학령」은 그가 교수·훈도로 재직하며 가르쳤던 향교의 유생들뿐만 아니라 그의 학당에서 공부하였던 동리의 자제들에게도 적용되었을 것으로 본다.

정극인이 작성한 「학령」은 내용상 크게 세 부분으로 살필 수 있는데, 먼저 앞부분은 공부의 목적에 관한 것이다. 「학령」에서는 '독서와 학문을 하는 까닭은 본디 마음을 열고 눈을 밝혀 행실에 이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공부는 덕을 성취하여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데 목적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에 입학하면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모두 스승과 벗의 규계·책려에 따라 독서와 학문에 정진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한 처벌이 가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그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학령」의 중간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일과田課를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회초리 50대, 앞서 배운 것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은 60대, 바둑이나 장기 등 잡기 놀이 하는 사람은 70대, 규계와 책려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80대, 시간을 틈타서 활쏘기를 배우는 사람은 90대, 여색을 탐하여 따르는 사람은 100대' 등 매우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령」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필 서명을 통해 학령 준수에 대한 다짐을 받은 다음 이를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정극인은 매우 엄격하게 제자들을 교육하였다. 오늘날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과한 느낌이 들 정도이지만, 이를 통하여 정극인의 강한 교육자적 신념과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물론 정극인의 교육관이 후대 성리학자들처럼 순수한 위기지학(爲己之學)에만 초점을 맞추

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인간다운 인간의 최고 경지인 성현<sup>聖賢</sup>이 되는데에만 학문의 목적을 둔 것이 아니고, 부귀<sup>富貴</sup> 등 현실적인 성공에도 어느 정도 염두해 두었다.

그가 자손들에게 남긴 유훈인 「자손계」에서도 자신과 집안을 보전하는데 학문의 공효가 크다는 것을 전제한 뒤, 옛 성현이 모두 학문을 통하여 나아간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공경과 장상이 나면서부터 누리는 지위가 아니라 젊었을 때 학문에 힘써 충명을 계발하면 반드시 이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손들이 학문을 통해 문호를 보전하기를 바라는 간곡한 심정을 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성현이라는 인격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도, 공경·장상이라는 현실적 성공을 이루는 것도 모두 학문의 공효이므로, 학문을 해야 하는 젊은 나이에 마땅히 학문에 정진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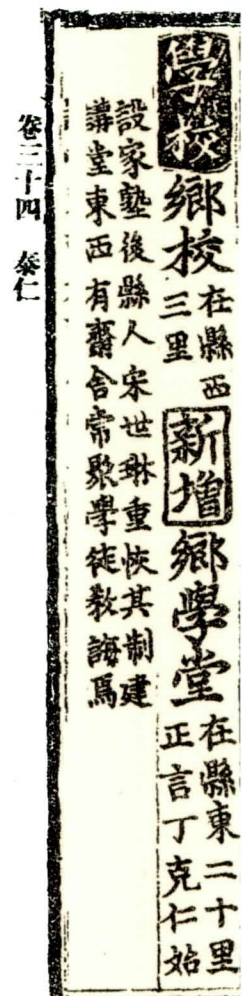
정극인은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교수<sup>教授</sup>·훈도<sup>訓導</sup>로서 지역의 유생들을 엄한 규율로 가르쳤고, 자신이 세워 운영한 학당의 자제들 또한 그렇게 교육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태인지역의 교육 전통은 송세림<sup>宋世琳, 1479~1519</sup>의 '향학당<sup>鄉學堂</sup>'과 신잡<sup>申潛, 1491~1554</sup>의 '오학당<sup>五學堂</sup>'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무성서원의 성립과 발전에 밑거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3) 1483년 태산사 이건

『무성서원지』 「태산사사실」 조에는 태산사의 이건 사실과 관련해 1483년(성종 14)에 선비들의 논의가 일어나 월연대에서 현재의 서원터로 이건하였다고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다. 태산사가 현재의 서원자리로 이건 되는 데에는 정극인의 유서가 바탕이 되었다. 정극인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1437년(세종 19)에 은퇴하여 불우현이라는 3칸 초당을 짓고, 여기에 서당[가숙<sup>家塾</sup>]을 열어 향리의 젊은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그의 사후에 서당은 향학당<sup>鄉學堂</sup>으로 발전하였는데, 사후 2년 되던 1483년(성종 14)에 태산사가 이 곳으로 이건되었다.

한편 '사론제발<sup>士論齊發</sup>'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과연 이때에 사론이 형성되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태산사로 명칭을 개칭한 연유와 당시 이를 주도했던 인물들에 대한 자세한 내력의 자료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태산사의 이건은 고려시대 유제인 생사당을 유교식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으로 보여지며, 송세림의 바로 앞 세대 인물 중 이와 관련된 인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렇게 이건을 하고 태산사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과정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이 있다. 정극인이 죽은 후 30년이 지난 1510년(중종 5)에 놀암 송세림이 고향에 돌아와서 고현동향약을 중흥시키고, 향학당을 다시 정비하였던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향학당」 조에는 송세림이 강당과 동·서재를 세워 학도들을 모아 가르쳤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1483년(성종 14) 이건 이후에 태산사에 새로운 교육 시설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상세한 자료는 전해지지 않는다. 당시 송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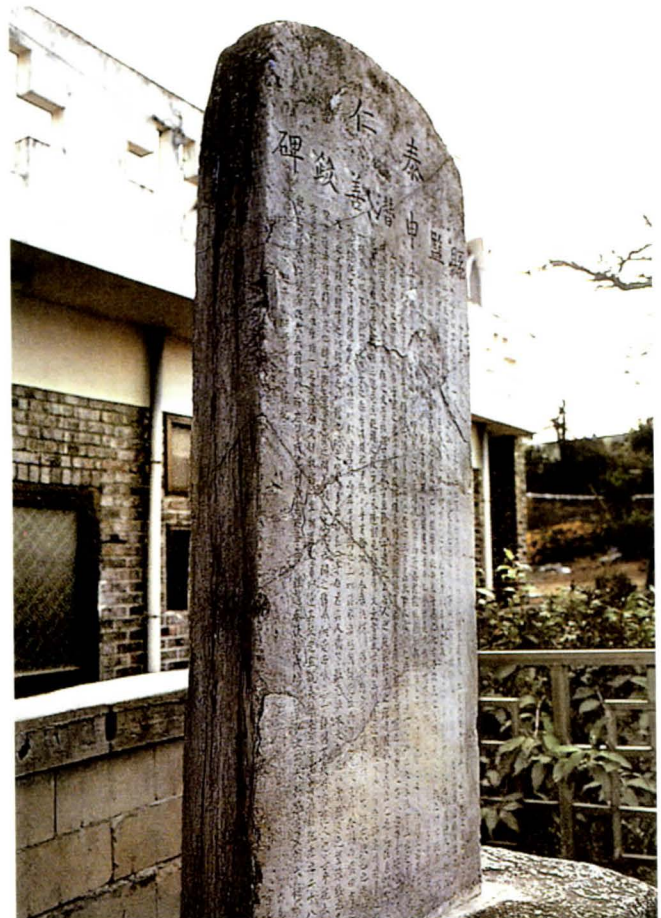
『신증동국여지승람』 태인현 학교조

림은 백록동학규를 모범으로 삼아 학규를 제정하였다고 한다. 그 후 16세기 후반에는 목재 정언충(鄭彦忠, 1491~1557)이, 그리고 17세기 전반에는 명천 김관(鳴川 金灌, 1575~1635)이 뒤를 이어 흥학을 도모하며 태산사를 발전시켜 나갔다.

#### (4) 신잠(申潛)의 흥학활동과 생사당

최치원의 행적을 기리는 생사당과 태산사에서 비롯된 무성서원은 조선전기 태산현감으로 부임한 신잠(申潛, 1491~1554)에 의해 또 하나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는 1543년(중종 38) 태인현감으로 부임하여 정극인의 유서와 강학적 전통을 토대로 고을 내에 동·서·남·북의 4학당(學堂)을 개설하고 흥학(興學)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현재 정읍시 태인면 태창리 91에 전해지는 신잠의 선정비(전북 문화재자료 제 105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학문을 일으키고 풍습을 변화시킴에 뜻을 두어 고을에 서당을 세우고, 서책을 인쇄하여 나누어 주고, 녹봉을 아껴 스승을 맞아 고을의 준수한 자제를 가르치고, 고아와 과부를 구휼하며 절개와 의리를 숭상하여 염치를 갖게 하며, 순후하고 독실한 행동으로 과오를 범치 않게 하니, 호협하고 교활하던 관리들이 목을 움추리고 마음을 고쳐 착한 행동을 하게 되어 차차 고을이 잘 다스려졌다.



신잠 선정비(이해준 제공)

또한 고을을 다스리며 부역과 부세를 줄여 백성의 오랜 고통을 없애준 공으로 생사당에 모셔 추앙되었다. 그리하여 비문을 지은 소세양(蘇世讓, 1486~1562)은 '자유(子游)가 무성군수로 읍민을 예로써 가르치니, 공자가 기뻐하셨다'는 '무성현가지성(武城絃歌之聲)'의 명언을 본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옛날 신라 말에 최고운이 힘써 이 고을에 있었던 유풍이 남아 있으며, 신 군수 시문의 재주 흥금의 지혜가 천년 전 최고운과 같으며, 읍민이 사랑하고 부러워함이 최고운에 뒤집이 없다'고 칭송하여 마지않았다.

그가 1549년(명종 4) 간성군수로 이임하게 되자 고을 선비 김원(金元)·백삼귀(白三龜) 등이 발의하여 선정비(소세양 찬)를 세우고 태인 사람들은 최치원과 마찬가지로 생사당을 건립하여 그의 공적을 기렸다. 생사당의 전통은 부역과 부세의 질고로부터 벗어나려는 민중의 염원과 함께 칭송하는 인물을 성황신으로 모셨던 것으로, 제향공간은 없어졌지만 신잠선생영상(申潛先生影像)이 남아 전북 민속문화재 제 4호로 지정되었다.

태인고을에서는 매년 정월 초하루와 대보름날이면 신잠에게 제사를 올려 고을의 태평과 세금 상납의 어려움이 덜어지기를 기원하였는데, 당집은 1950년경에 무너지고 현재는 영상(影像)만 태인초등학교 민속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 영상은 신잠의 조각상과 부인, 큰아들의 상, 시종드는 여인상, 호랑이상을 만들어 모셨다. 신잠상은 85.6cm, 부인상 76.5cm, 큰아들상 58.5cm, 시녀상 55.5cm, 호랑이상 61.5cm의 크기이며, 모두 나무로 만들어 화려한 색을 칠하였고 조각방법도 매우 정교하다.

신잠이 현감으로 있는 동안 고을의 학문을 부흥시키려한 행적이 유교식으로 이어져 1615년(광해 7) 고운 최치원과 함께 태산사에 합향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지역민들은 그를 성황신으로서 받들어 모셨다.

## 2) 태산서원의 건립

### (1) 태산서원 건립과 고운, 영천의 합향

태산사는 향현(鄕賢)들의 향촌활동, 특히 강학과 향약활동에 그 터전을 두고 있다. 정극인은 흥학당의 단초를 열었으며, 송세림은 정극인이 창설한 향학당을 재건하여 향리자제들을 교육 하였다. 신잠은 태인현감으로 7년 간 재임하면서 오학당을 개설하여 흥학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동·서·남·북의 사학(四學)을 세우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다. 그리고 광해의 난정 이후 은퇴하여 향학당 운영을 맡았던 김관은 향학당 규약에 따라 향리의 후배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전통을 이어 태산사는 이건 이후 130여 년이 지난 -송세림이 강당과 동·서재를



신잠선생영상(이해준 제공)

마련한 이후부터 100여 년만인- 1615년(광해 7)에 규모를 일신하여 서원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태산사에 모셔져 있던 최치원과 향학의 진흥에 공이 컸던 신잠을 합향해 사묘인 태산사와 향학당이 결합하는 특이한 서원의 발전사를 갖게 된 것이다.

태산사가 서원으로 발전·변화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최치원과 신잠을 합향하면서 서원으로 발전시킨 주역들이 누구였는지 유추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고현동향약 중 1602년(선조 35)의 자료에 보이는 인물들이 대부분 태산서원의 주역들이었음을 미루어 보아 동약과 서원의 운영 주도층이 거의 동일하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 (2) 태산서원 건립기의 7광<sup>七狂</sup>과 송정<sup>10현</sup>松亭十賢

01 월봉 김대립(月峯 金大立), 오무 김응운(梧無 金應贊), 천묵 이상형(天默 李尙馨), 곤암 송치중(壺巖 宋致中), 부휴 김감(浮休 金堪), 난곡 송민고(蘭谷 宋民古), 관산 이탁(觀山 李達)

02 오무재 김응운(梧無齋 金應贊), 명천 김관(鳴川 金灌), 관산 이탁(觀山 李達), 월담 양몽우(月潭 梁夢禹), 취세 김정(贅世 金鼎), 곤암 송치중(壺巖 宋致中), 부휴 김감(浮休 金堪), 만오 김급(晩悟 金汲), 난곡 송민고(蘭谷 宋民古), 월오 김우직(月梧 金友直)

태산서원의 건립과 관련하여 광해군과 대북정권의 정치에 항의한 7광<sup>七狂</sup><sup>01</sup>과 송정 10현<sup>松亭十賢</sup><sup>02</sup> 등을 주목하게 된다. 이 모임은 지역 사족들의 향촌결사체로 이들은 광해군의 난정과 폐모사건에 상소로 항의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어지러운 세상에 벼슬을 버리고 태인에 모여 자연을 노래하며 지냈다고 한다. 현재 무성리 원촌의 성황산 중턱에 있는 송정 松亭 (전북 문화재자료 제 133호)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후손들은 영당<sup>影堂</sup>을 세우고 1910년 채용신이 그린 칠광도<sup>七狂圖</sup>와 송정10현도<sup>松亭十賢圖</sup>를 봉안하고 춘·추로 제향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중 태산서원이 건립되던 1615년(광해 7)에 김관이 진사시에 합격하였던 사실이 주목되는데, 바로 송정 10현지회<sup>松亭十賢之會</sup>를 만들어 초야에 문했다고 하는 그 시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관은 정극인과 송세림이 세워온 향학의 전통을 이어 향학당<sup>鄉學堂</sup>에서 향리의 자제들을 가르쳤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41세의 나이였으므로 큰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태산서원으로 변화·발전하는 과정에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뒤의 일이지는 하나 1627년(인조 5)에 정묘호란이 발발하자 사계 김장생<sup>沙溪 金長生</sup>, 1548~1631의 창익에 동참하여 의곡<sup>義穀</sup>을 모집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1

2

1. 송정松亭
2. 정극인丁克仁 동상

### 3) 무성서원의 사액과 연액의절

#### (1) 유지춘<sup>柳之春</sup> 등의 청액상소와 사액 과정

태산서원의 사액을 청하는 청액상소는 1695년(숙종 21) 11월에 발의되어 이듬 해 1월에 올려졌고, 소두<sup>疏頭</sup> 생원 유지춘<sup>柳之春</sup> 등 전라도 유생 202명이 참여하였다. 청액상소의 시말은 『무성서원지』 「청액사적」조에

을해년(1695년, 숙종 21)

11월 3일 무성서원에서 향회를 열고 도내에 통문을 돌림

12월 1일 본교[향교]에서 소회를 열고

병자년(1696년, 숙종 22)

1월 5일 상소를 올림

2월 9일 부승지 심평<sup>沈評</sup> 차지로 '무성'으로 사액 운허를 받음

11월 23일 연액

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즉 1695년(숙종 21) 11월 무성서원에서 향회를 통하여 뜻을 모은 후 도내 신진 사족들에게 통문을 돌려 이듬 해 1월 5일 상소를 올렸던 것이다. 당시 청액소의 소두는 생원 유지춘이었고, 상소문은 진사 송명연<sup>宋明淵</sup>이 지었으며, 생원 김정삼<sup>金鼎三</sup>이 썼다. 상소에는 사우 창건이 이미 100여 년이 지났다는 점, 최치원의 문장 학업·종묘 배향을 비롯하여 신잡의 흥학 행적과 정극인 등 향현들의 활동을 적고 태인의 사람들이 아직도 사액 받지 못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있음을 표명하였다. 또 이 청액상소에 선왕대에 도내 사람들이 사액을 청하는 상소를 올렸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있어 이전에도 청액상소를 올렸음을 알 수 있다.

청액상소는 부승지 심평<sup>沈評</sup>에 의하여 숙종에게 전달되었으며, 그 해 2월 9일 무성<sup>武城</sup>·태산<sup>泰山</sup>·남천<sup>南川</sup>의 3개 망보 중 수망인 「무성<sup>武城</sup>」으로 사액을 받았다. 사액과 함께 경제적인 혜택으로 복호<sup>復戶</sup> 3결, 보노<sup>保奴</sup> 30명이 지급되고 원생도 30명으로 정해졌다. 당시의 사액 사실은 『숙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전해지는데, 기록 내용을 살펴보면 사액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라도의 유생 유지춘<sup>柳之春</sup> 등이 태인현에 최치원<sup>崔致遠</sup>을 향사하고 신잡<sup>申翳</sup>을 합향하며, 정극인<sup>丁克仁</sup>·송세림<sup>宋世琳</sup>·정언중<sup>鄭彦忠</sup>·김약목<sup>金若默</sup>·김관<sup>金灌</sup>을 배향하고, 은액을 내려 원우를 꾸미게 하여 주기를 청하였다. 상소문을 예조에 내리니 예조에서 첩설의 사례가 아니므로 사액을 운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

03 1696년(숙종 22) 1월 1일(무오)

여 운허하였다. 대개 최치원·신잠은 이 고을의 수령이었기 때문이고, 정극인 이하 5인은 이 고장의 어진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최치원은 논할 만한 학문은 없으나, 이미 문묘에 배향되어 있어 숭상하여 보답하는 사전(祀典)이 혹 외람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신잠에 이르러서는 기묘년 현량과의 천거에 오르기는 하였으나, 학문과 행실이 매우 현저하지는 못하였으며, 정극인 이하는 명성이 더욱 부족하니 만약 향사를 하려면 향선생(嚮先生)을 제사하는 뜻으로 사사로이 숭봉하는 것이 가할 따름인데, 이로써 조정에 은액을 내려 주기를 청하기에 이르렀으니, 지극히 외람되다. 더구나 그 소사(瑤辭)에 신잠 등 여러 사람에 대하여 선정신(先正臣)이라 칭하기까지 한 것은 더욱 지극히 우스운데, 정원(政院)에서 흐릿하게 봉입(捧入)하였고, 해조(該曹)에서는 또 그 말에 굽혀 따라서 사전(祀典)이 엄하지 않게 하였으니, 통탄스러움을 금할 수 있겠는가?<sup>03</sup>

## (2) '무성(武城)'이란 액호와 '현가지성(絃歌之聲)'의 의미

무성서원 사액 현판과 현가루 현판은 이 서원의 독특한 유래와 의미를 상징한다. 무성은 신라시대 태인의 지명이기도 하지만,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다스렸던 그 '무성'과도 같다. 이는 『논어(論語)』의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유래 한 것이다.

04 『논어(論語)』 양화(陽貨)

‘공자께서 무성(武城)에 가서 음악 소리를 들으셨다(子之武城 聞絃歌之聲)’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라 한다. 선생님께서서는 빙그레 웃으시며,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하고 말씀하셨다. (이에 무성의 수령으로 있는) 자유(子游)가 대답했다. ‘예전에 선생님께서 군자가 예악을 배우면 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이 예악을 배우면 부리기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자가 말했다. ‘그대들이여 자유의 말이 옳다. 앞에서 한 말은 농담이었다.’<sup>04</sup>

위의 고사는 공자의 제자 자유가 노나라 무성의 현감이 되었는데 예악(禮樂)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려 공자가 이 고을을 찾아가니 마침 현가(絃歌)가 들려와 탄복했다는 내용이다. 즉 태산(泰山)이라는 옛 지명과 사우 이름이 있었음에도 '무성(武城)'이란 이름을 사액한 것과 '현가지성(絃歌之聲)'의 고사를 딴 문루 '현가루(絃歌樓)'에서 보듯이, 서원은 읍이 크던 작던 간에 반드시 예악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공자의 교화사상(教化思想)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또 한 심학(心學) 중심의 신유학에서 추구하였던 내성(內聖)이 아닌 흥학(興學)과 예교(禮敎)를 교학(敎學) 정신으로 삼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 (3) 「연액기사」를 통해 본 사액절차

1696년(숙종 22) 11월 23일, 사액사<sup>賜額使</sup>로 예조좌랑 유격<sup>柳格</sup>, 1545~1584이 무성서원에 파견되어 연액례를 올렸다. 당시 원장은 영의정 남구만<sup>南九萬</sup>, 1629~1711, 경유사는 응교 조상우<sup>趙相愚</sup>였다. 제관으로는 이웃 고을인 순창군수·정읍현감·태인현감, 원임으로는 김만채<sup>金萬采</sup>·은정화<sup>殷鼎和</sup> 등이 참여하였다. 당시 연액례 사실은 무성서원 소장 고문서 중 「연액기사」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전한다.

「연액기사」는 1696년(숙종 22) 무성서원 청액소부터 연액례, 폐물 등 부조기, 건물의 수리, 위패의 환안<sup>還安</sup>·이안<sup>移安</sup> 등 사액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문서이다. '청액상소'를 시작으로 연액 당시 예관 예조좌랑 유격<sup>柳格</sup>과 원임 김만채 등 직임 명단, 예관의 폐백물건, 각읍부조기<sup>各邑扶助記</sup>, 물력수입기<sup>物力需人記</sup>, 청액시 유희, 사우중수, 연액시 향수, 이안제 축문, 환안제 축문 등의 기록들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다. 이는 무성서원의 사액과 관련된 주요 사실들을 상세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중 각읍예부기를 보면, 순찰사·태인현감·정읍현감·금구현감·부안현감 등이 다양한 물품을 지원하였고, 정읍향교·흥덕향교·남원향교·광주향교·태인향교·나주향교·전주향교·금구향교·순창향교·순천향교·고암서원·남고서원·의암서원·동학당·북학당·서학당·남학당·흥양정씨 문중 등에서 전곡을 출연하였다.



연액기사延額記事

## 4) 무성서원의 원규와 강습례

### (1) 무성서원 원규

조선시대의 서원에는, 현대 학교의 학칙과 비슷하게 서원의 교육과 운영에 관한 자체 규약이 존재한다. 이것을 '원규<sup>院規</sup>' 또는 '학규<sup>學規</sup>'라 하는데, 무성서원에도 '원규'(『무성서원지』 권1-하)가 있다. 무성서원의 원규는 언제,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 수 없다. 다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율곡 이이<sup>栗谷 李珣</sup>, 1536~1584의 「은병정사학규<sup>隱屏精舍學規</sup>」와 미호 김원행<sup>漢湖 金元行</sup>, 1702~1772의 「석실서원학규<sup>石室書院學規</sup>」를 종합한 것임을 알 수 있어 18세기 말경에 작성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무성서원 원규는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은 ① 입학 조건 ② 입학후 징벌 ③ 식망의 분향·재배 ④ 새벽 공부 ⑤ 매일의 사당 참배와 상음례 ⑥ 독서 ⑦ 거처 ⑧ 책상과 서책 등의 정리정돈 ⑨ 의관과 몸가짐 ⑩ 독서 ⑪ 작문과 작자 ⑫ 언어 규범과 '범씨칠계' ⑬ 봉우 관계 ⑭ 금방<sup>禁防</sup>:주색, 잡기, 형벌 관련 서적 ⑮ 저녁 독서 ⑯ 학업

정진(정좌, 강론) ⑰ 귀가 시의 수칙 등이다.

조선시대의 서원은 설립 초기부터 자기 자신의 인격적 완성을 공부의 일차적 목표로 추구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의 이념을 표방하였다. 당시의 관학이 학령(學令)과 과거(科擧) 공부에 얽매어 있는 점을 비판하며, 학문을 그 자체의 가치로 추구하는 위기지학의 장소로 서원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무성서원 원규는 과거 공부에 대해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예컨대, 원규의 '독서' 조항에서 '정현의 글이나 성리의 학설이 아니면 서원 안에서 읽을 수 없다. 역사책은 반입을 허락하되, 만약 과거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하도록 한다'고 하여 서원 내에서의 과거 공부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곡 이이가 「은병정사학규」에서 제시한 원칙<sup>05</sup>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일종의 '배제론'이라 할 수 있다.

05 『율곡전서』 권15 「잡저」, 「은병정사학규」

## (2) 무성서원의 강습례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무성서원지』(1884, 1936)에는 19세기 후반에 무성서원에서 개최된 강습례(講習禮)라는 독특한 성격의 강회(講會)에 관한 자료들이 실려 있다. 예컨대, 『무성서원지』의 「갑을기사(甲乙記事)」,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강습례도(講習禮圖)」 등 강습례 관련 자료가 바로 그것이다. 강습례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무성서원의 교육 관련 자료 중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이들 자료를 통해 19세기 말, 20세기 초 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무성서원의 교육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성서원지』의 「갑을기사」에 따르면 무성서원에서는 1872년(고종 9)에 당시 원장이었던 현감 조중식(趙中植)과 안학률(安學律)·김영조(金永朝) 등이 매년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실제로 이듬 해인 1873년(고종 10)부터 1880년(고종 17)까지 매년 강습례를 개최하였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강회(講會)의 일종으로서, 그 명칭은 물론 의식절차와 설행 일자 등에서 여타의 서원과 상당히 다른 특이성을 갖고 있다. 아울러 강습례의 개최 시기가 서원철폐기에서 개항 및 국권상실기에 걸쳐 있다는 점도 특별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성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는 강습례 관련 주요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갑을기사」는 강습례 개최 연도와 일자를 기록하고 있다. 1675년(숙종 1) 2월 2일의 현가루 중수로부터 1929년 2월 중정일(仲丁日)의 춘향(春享)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1675년(숙종 1)부터 1868년(고종 5)까지는 서원 수증(修證)이나 제향 관련 기사가 원임(院任) 명단과 함께 드문드문 기록되어 있을 뿐이고, 총 기사 수도 30건이 채 되지 않는다. 하지만, 1871년(고종 8) 이후부터는 춘추제향에서부터 원임, 강습례(향음주례 포함), 주요 인사의 봉심(奉審), 원우 수증 등의 기사가 매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이 「갑을기사」를 통해

불 때, 강습례는 1873년(고종 10)부터 1880년(고종 17)까지 집중적으로 거행되었으며, 이후에는 한 동안 행해지지 않다가 1891년(고종 28) 이후 1922년까지 아홉 차례에 걸쳐 간헐적으로 개최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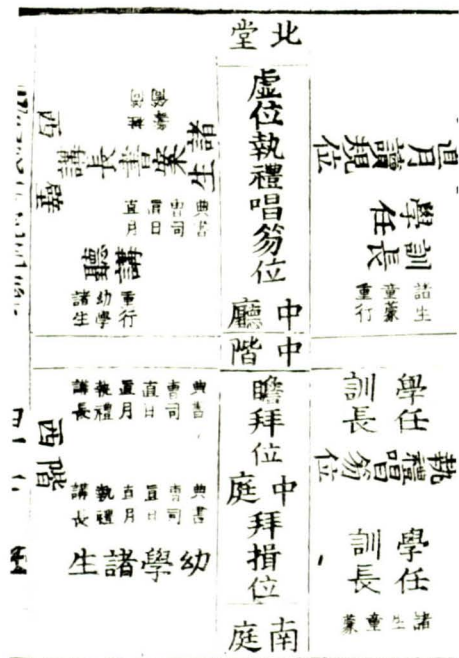
강습례는 무성서원의 내·외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전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그 개최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무성서원에서 1873년(고종 10)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강습례는 존치된 47개 서원의 하나인 무성서원이 서원 설립의 본뜻이자 서원의 본질적 기능인 '강학명도(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서원의 물질적·경제적 기반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이의 극복을 위해 서원 내부의 결속을 다지고 외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으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무성서원이 당시 최대 현안 과제였던 복호와 보노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서 국가적 지원을 다시 받을 만한 서원 자체의 자구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구책의 하나는 역시 그 동안 지적되었던 서원의 폐단을 극복하고 서원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성서원의 강습례에는 다른 강회의 의식절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특한 의식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강당의 북쪽에 남향으로 허위(虛位)를 설치하고, 이 허위에 대하여 '첨배(瞻拜)'와 '배독(拜讀)'의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보통 강회에서는 강당의 북쪽에 강장이 남향으로 앉고, 그 앞에 서안(書案)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강습례도」에서 보이듯이 강당의 북쪽에 허위를 설치하고 이 허위에 대하여 학임과 강장 이하 여러 집사 및 유생들이 강당 앞뜰에서 첨배 의식을 행한다. 일반적인 강회에서는 사당에 참배한 다음 돌아와 강당 앞뜰에서 상음례(相揖禮)를 행하고 승당하여 강을 시작하지만, 무성서원의 강습례에서는 당상의 허위를 향해 강회 참석자 모두가 함께 첨배하는 의식으로 강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아울러 강습례에서는 강장 이하 집사 및 유생들이 승당하여 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강장과 학임이 각각 허위 앞으로 가 절하고 꿇어앉아 책을 읽는 배독의 의식을 행한다. 허위 앞에서의 배독은 여타 강회 의절에서는 보기 어려운 의식절차이다. 이처럼 무성서원의 강습례에서는 허위를 설치하고, 이 허위에 대하여 첨배 및 배독의 의식을 행하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무성서원의 강습례가 보통의 강회와는 다른 의례적·상징적 의미를 갖게 만든다.

무성서원의 강습례 반차(班次)에는 향음주례의 예양(禮讓)과 서치(序齒)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강습례가 '경서 감독'이라는 강회의 일반적 의미와 함께 '고례 습례'라는 특별한 예교적 의미를 함께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무성서원의 강습례에서는 강당의 북쪽에 남향으로 허위(虛位)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첨배 및 배독 의식을 거행하며, 강회 내내 허위가 사석의 위치를 점하고 있다.



『무성서원지』 「강습례도」, (1884)

## 5) 무성서원과 고운 최치원

무성서원의 역사와 문화사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사항은 바로 고운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긴밀한 관련이다. 무성서원이 대원군의 서원철폐를 면할수 있었던 연유도 결국은 최치원이라는 인물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최치원 이외의 무성서원 제향인물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다른 지역의 '향현'이라 하여도 좋은 인물들이다.

주지하듯이 무성서원이 위치한 곳은 태산현의 옛터이며, 비록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최치원은 태산의 현감으로 부임하여 일화와 유적을 남겼다. 그리하여 무성서원을 찾는 많은 인사들이 최치원의 행적을 기리는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무성서원에 최치원의 영정이 봉안되고 그의 시문집인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 판각이 보관되어 왔다는 점은 최치원과 무성서원의 특별한 관계를 말해주는 것이다.

### (1) 고운 최치원 영정 봉안

1783년(정조 7)에 낙안 · 홍양향교 유생들은 무성서원에 통문을 보내 쌍계사에 봉안된 영정을 무성서원으로 이안하기를 권유하였다. 이를 계기로 이듬 해에 무성서원에 고운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에 이르렀는데, 이에 관련된 자료로 『(무성서원)중수일기(重修日記)』(책 17장, 필사본)가 전한다.

『중수일기(重修日記)』 1책에는 홍양 · 낙안 양읍에서 보낸 통문과 그에 대한 본읍의 답통을 시작으로 1783년(정조 7)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기 전에 사당을 중수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비용을 출연한 인명과 1784년(정조 8) 쌍계사로부터 최치원 영정을 이안해 오는 전 과정 이 외에 영당이건에 관련된 일체의 상황을 일기체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또 각종 「부조기(扶助記)」, 「물력수입기(物力收入記)」, 「이안현관집사기(移安獻官執事記)」, 「봉안영정일기(奉安影幀日記)」, 「단청중수기」 등이 수록되어 있다. 최치원의 영정은 1784년(정조 8) 이안 이후 1825년(순조 25) 무성서원 강당이 소실되자 태인현감 서호순(徐灝淳)이 영정의 훼손을 염려하여 1831년(순조 31)에 새롭게 개모하였고(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1923년에 한말의 저명한 화사 채용신(蔡龍臣, 1850~1941)에 의하여 다시 개모되어 현전하고 있다(전북도립미술관에 위탁보관 중).

그러나 최치원의 영정 2점(1784년 쌍계사에서 옮겨온 1점, 1831년 쌍계사본을 모사한 1점)은 무성서원에서 더 이상 볼 수 없다. 1968년 무성서원을 사적으로 지정 할 당시, 이 영정을 보고 국보급이라고 여겨 문화재 지정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져간 후 현재 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무성서원에서는 영정의 반환을 요청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치원의 영정은 일본의 나라현의 천리대학박물관에도 있다.



고운 최치원 초상  
(채용신 필, 전북도립미술관 소장)

## (2)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의 간행

『계원필경집桂苑筆耕集』은 고운 최치원의 시문집으로 만여 편의 글 가운데서 정수만을 뽑아 20권으로 편찬한 것이다. 『삼국사기』·『해동문헌총록』 등의 기록으로 미루어 고려·조선 중엽까지 여러 차례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서유구徐有渠, 1764~1845는 계원필경 서문에서 1834년(순조 34) 호남관찰사로 재직 중 무성서원에 들리 배알하였는데, 이때 홍석주洪奭周, 1774~1842가 집에 소장되었던 구본舊本을 보내면서 후대로 전승할 것을 권함에 이를 교정하여 전주에서 취진자聚珍字로 간행하였다고 한다.<sup>03</sup>

03 『桂苑筆耕集』, 『校印桂苑筆耕集序』, (1834년), 서유구(徐有渠)·홍석주(洪奭周) 찬

한편 현재 무성서원 강당에 걸려있는 「무성서원 최선생문집중간기武城書院崔先生文集重刊記」 현판에는, 계원필경이 산질되어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던 중 심능숙沈能淑, 1782~1840이 무성서원을 방문하였다가 최치원을 주향으로 하는 서원에서 당연히 문집을 보장하여야 함을 감사 서유구에게 보고하여 전주 감영에서 문집을 간행하도록 하였음이 기록되어 있다.

## 6) 한말에 다시 부흥하는 무성서원

### (1) 훼손을 면한 무성서원

무성서원은 1868년(고종 5)에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위기에 처했으나 당시의 현감, 유림 등이 청원하여 화를 모면했다. 철폐령에서 제외된 전라도의 서원은 필암筆巖·무성武城 서원 뿐<sup>04</sup>으로 전북지역에서는 무성서원이 유일하다.

04 사우(祠宇) 중에는 전남에 포충사(褒忠祠)가 유일하다.

이처럼 훼손의 위기를 넘긴 무성서원은 이후 더욱 활발하게 호남 우도 수원首院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였다. 즉 1887년(고종 24)에는 강수재講修齋를 창설하고, 1891년(고종 28)에는 현가루絃歌樓를 건립하였다. 현가루는 『논어』의 「양화陽貨」편에 나오는 ‘공자가 무성(제자 자유가 다스리던 지역)에 가서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子之武城 聞絃歌之聲’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무성서원의 흥학과 예교의 정신을 강조하고, 이 서원의 품격과 유서와 가치를 격상시킨 것이 바로 무성과 현가의 두 현판인 셈이다.

현가루는 1891년(고종 28) 창건된 문루로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노나라 무성武城의 현감이 되어 예악禮樂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려 현가지성絃歌之聲이 들려와 공자가 탄복했다는 일화와 연관되는 명칭이다. 다른 서원의 문루가 신유학의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의미를 함축하는 내용인 것과 달리 현가루는 원시 유학의 현실 참여 의미를 가진 것이다. 1891년(고종 28) 관찰사 김규홍金奎弘이 찬한 「현가루(창건)기」에는 무성서원의 연혁과 현가지성의 고사, 제향인물의 특징, 문루 건립 일화, 필암서원과 포충사의 예와 같이 전라남북 열읍 유림들의 예부

전을 모아 1891년(고종 28) 헨가루가 창건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무성서원은 호남지역의 다른 서원에 비한다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서원지가 편찬되었고, 연이어 중간되었다. 즉 1884년(고종 21)에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 2권 2책(최성재 등 편, 무성서원 개간, 김성근·정복원 서, 기량연·신기조 발)이 간행되었으며, 당시 무성서원 유림들의 자료 정리 소명과 식견이 잘 반영되어 있고, 그 만큼 서원지 편찬내용도 충실하다. 그리고 1929년(1925년 김환풍 서, 1929년 김인기 발)과 1936년(김인기 등 편)에 3권 3책, 석판본이 연이어 중간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서원 내에 걸리지 않은 현판의 기문류 자료들도 서원지에 수록되어 있다.

## (2) 최익현의 병오창의와 무성서원

1873년(고종 10)부터 개최하기 시작한 강습례는 휘철을 면하고 살아남은 무성서원이 서원 설립의 본뜻이자 본질적 기능인 ‘강학명도(講學明道)’의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그 시행이 결의되었음을 앞에서 살핀 바 있다. 이런 연계선 상에서 무성서원은 한말 병오의병(丙午義兵)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무성서원은 한말 병오의병으로 유명한데, 1906년 면암 최익현(勉菴 崔益鉉, 1833~1906)과 임병찬(林炳燦, 1851~1916)의 창의를 거점이었기 때문이다. 최익현과 임병찬은 1906년 6월 4일 무성서원에 모여 강회를 열고 최치원의 영정을 봉심한 후 당시 서원소임 김기술·유종규와 함께 강회에 참석하여 「창의토적소」를 올렸다. 강회가 끝난 후 80여 명의 의사가 함께 창의를 기치를 높이 들고 격문을 돌려 태인·정읍·순창·곡성을 점령하였다. 그러나 6월 12일 순창에서 관군의 공격을 받아 최익현·임병찬 등 13명은 붙잡혀 서울로 압송되었고 최익현은 감금 3년, 임병찬은 감금 2년 선고를 받았으며, 둘 다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

병오창의, 무성창의로 일컬어지는 1906년의 최익현·임병찬의 의병사적은 무성서원의 정신사적 위상과 지성사적 전통을 잘 보여준다. 최익현의 의병창의는 앞에서 소개한 무성서원의 강회와 유림 동원력, 대표성을 기반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丙午倡義紀蹟碑

親撰己亥心身表國

石道新溪海國

◎ 무성서원 주요 연혁

- 887년(통일신라) 고운 최치원 태산군수 부임, 월연대에 생사당 건립
- 1483년(성종 14) 정극인 가숙 건립
- 1485년(성종 16) 생사당을 현 위치로 이전하고 태산사로 개칭
- 1510년(중종 5) 송세림 강당과 동서재 건립(향학당)
- 1543년(중종 38) 신잠 현감 부임 강학(4부 흥학당 창건)
- 1615년(광해 7) 태산서원 건립, 고운 최치원과 영천 심잠 합향
- 1630년(인조 8) 불우현 정극인·놀암 송세림 추배
- 1675년(숙종 1) 목재 정언충, 성재 김악목, 명천 김관 추배
- 1696년(숙종 26) 도내 유림 통문으로 청액소 올림(202명), 무성으로 사액
- 1783년(정조 7) 사우 단청, 낙안 흥양향교 유림들이 최치원 영정관련 통문 보내옴
- 1784년(정조 8) 쌍계사(雙溪寺)로부터 최치원의 영정 이안
- 1825년(순조 25) 4월 강수재(강당)의 화재
- 1828년(순조 28) 현감 서호순(徐翬淳)의 지원으로 대대적인 중창
- 1831년(순조 31) 최치원 영정 개모
- 1834년(순조 34) 『계원필경』 중간, 관찰사 서유구 무성서원 배알
- 1847년(헌종 13) 무성서원 중수
- 1849년(헌종 15) 강당재건에 힘쓴 현감 서호순의 불망비를 건립
- 1854년(철종 5) 무성서원 중수
- 1868년(고종 5) 서원 철폐령으로 복호·보노를 삭제
- 1871년(고종 8) 태인현감 김인관이 원장을 맡음
- 1872년(고종 9) 현감 조종식 원장 맡음. 매년 봄가을에 강습례를 행할 것을 결의
- 1873년(고종 10) 이 해부터 1880년까지 3월 3일과 9월 9일에 강습례 총 20회 개최
- 1875년(고종 12) 무성서원 중수
- 1879년(고종 16) 영의정 이치응의 배려로 복호·보노가 환원
- 1882년(고종 19) 이치응의 불망비 건립
- 1884년(고종 21) 최성재(崔成在) 등에 의하여 『무성서원지』 간행
- 1886년(고종 23) 무성서원중수
- 1887년(고종 24) 강수재 창설
- 1891년(고종 28) 현가루 창건
- 1892년(고종 29) 신문 중수, 제기 수보

1901년 사우중수

1902년 포사庵의 세금 60냥으로 제수마련

1903년 헝가루 중수

1904년 무성서원 중수

1906년 무성서원 강회(병오창의), 창의토적소를 올림. 고운 최치원 영정 봉심

1917년 무성서원 중수

1923년 고운 영정을 채용신(1850~1941)이 개모(정음시립박물관 위탁보관 중)

1926년 문루의 기둥과 담장 고사 수리

1929년 『무성서원지』 발간

1930년 사우중수 및 전사소 창건

1936년 헝가루 중수

1965년 강수재 중수

1967년 제기 개수

1968년 사적 제 166호로 지정

1983년, 1989년, 1993~4년, 1997년 보수

1989년 본당 연목 교체, 지붕해체 보수, 미장 공사

1994년 단청 보수, 사당 비각2동 보수, 담장 설치, 인공수지 처리공사

1997년 헝가루 · 강수재 · 강당 · 사당 · 내삼문 · 담장 보수

1998년 헝가루 · 비각1 · 비각2 보수

## 7) 무성서원의 입지와 건축

사적 제 166호로 지정된 무성서원은 전라북도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 500번지(구 태인현 고현내면 원촌리)에 위치한다. 무성서원은 1868년(고종 5)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은 47개 서원 중 하나로 전라 우도의 수원<sup>首院</sup> 역할을 해왔다.

### (1) 무성서원의 입지

무성서원은 마을 중심부에 자리 잡아 주변에는 많은 가옥들이 서원을 감싸고 있다. 이러한 입지와 주변 경관은 대부분의 다른 서원들이 향촌과 떨어져 풍광이 수려한 자연 경관과 함께 했던 것과 달리 매우 이례적이고 독특한 경관 구조이다.

마을 서쪽 편은 칠보산 줄기가 남에서 북으로 흐르면서 마을의 배산을 형성하고, 마을 전면과 좌우로는 넓게 트인 들이 있다. 들 가운데로는 개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sup>背山臨水</sup>형 마을 형국을 하고 있다. 마을 좌향은 동남쪽을 바라보는 건좌손향<sup>乾坐巽向</sup>이다. 이러한 마을 형국의 중심부에 무성서원이 마을과 같은 방향으로 입지하고 있다.





무성서원 주변 전경

## (2) 최소 공간으로 꾸며진 무성서원의 배치

평지와 다름없을 정도로 얇은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는 무성서원에는 가장 뒤쪽으로 높은 곳에 제향공간인 태산사가 위치하고 있다. 강학공간은 서원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는 강당과 그 동편 담장 밖에 있는 강수재가 있는 구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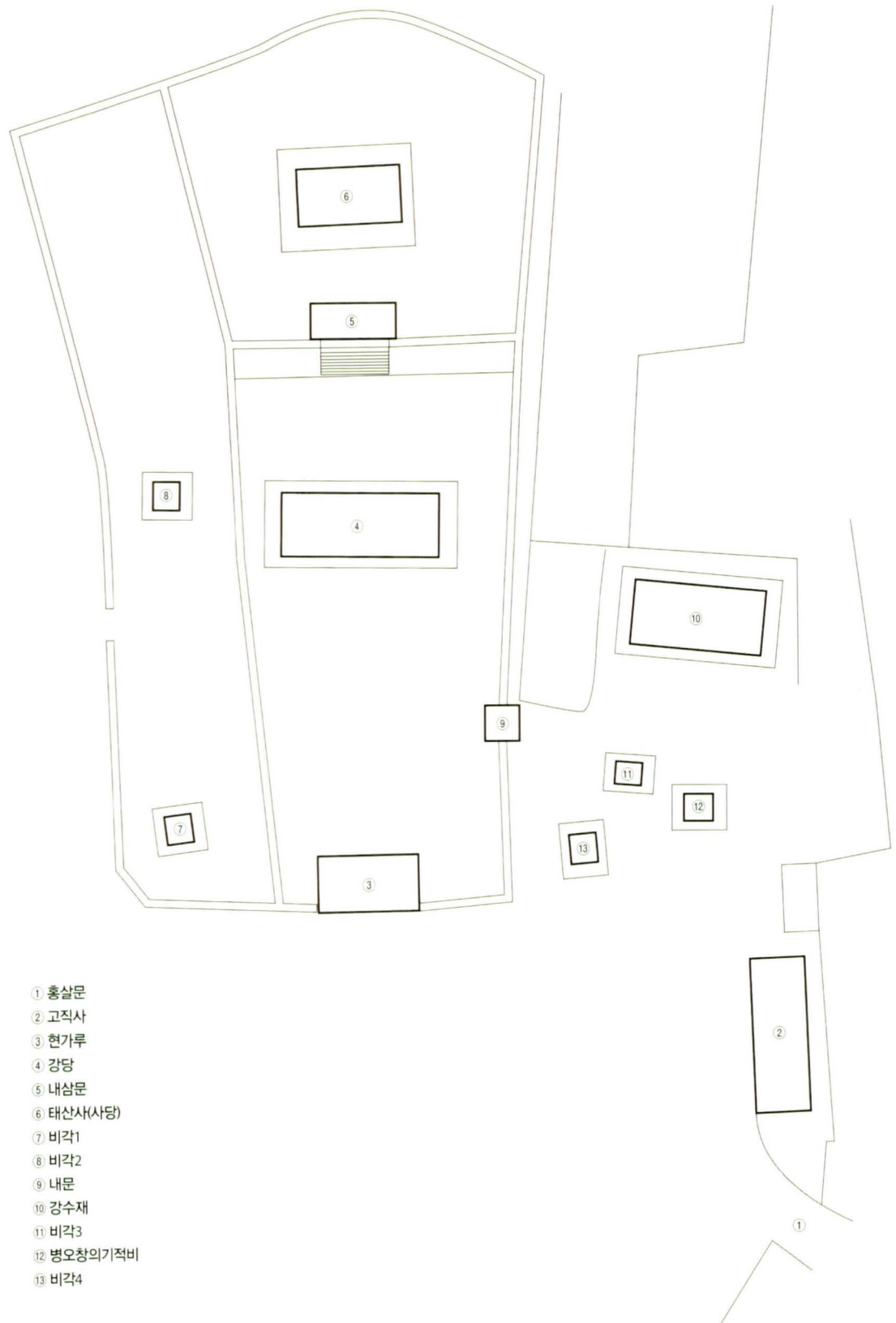
그리고 서원 정면에는 누각인 현가루(絃歌樓)를 배치하여 유식구역으로 삼았다. 수직구역은 서원의 제향준비와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고직사를 두는 곳인데, 이 곳에서는 현가루 동측에 별도의 건물을 두고 있다. 이러한 무성서원은 전면에 강학공간을 두고 후면에 사우를 두는 전형적인 전학후묘식 배치이다.

내삼문과 담으로 둘러싸인 서원의 가장 뒤쪽에는 태산사(泰山祠)가 자리하였다. 사우 안에는 고운 최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패를 봉안 하였다. 이처럼 담으로 둘러싸인 제향공간을 '敬의 공간'이라고도 하는데, 이 곳은 선조에 대한 예를 표현하는 곳이다. '경(敬)'은 성리학에 있어서 '정(誠)'과 더불어 가장 근본적인 개념으로 성리학의 살아있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 (3) 무성서원 건축적 특징과 가치

무성서원의 건축물 배치는 서원 정면의 현가루에서 사우에 이르기 까지 남북(엄격히 말하면 동남~서북) 중심축선을 두고 그 축선을 따라 뒤로 가면서 현가루 · 강당 · 내삼문 · 사우가 배치되고, 그 주위를 담장으로 둘러쌌다. 특히 강당의 경우 문이 갖추어있지 않고 앞 · 뒤가 훤히 뚫려있는데, 이는 다른 서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이다. 이런 구조를 갖게 된 것은 뒤에 위치한 사우가 거의 평지에 위치한 관계로 강당이 사우를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기에, 열린 구조로 엄숙한 위계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담장 동측 밖에는 동재라고 볼 수 있는 강수재(講修齋)가 있고 그 앞으로 2동의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무성서원 정면에 배치된 현가루(絃歌樓)는 조선 후기에 건립된 것으로 무성서원의 고유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건물이라 하겠다.

무성서원은 과도하게 서원의 영역을 확장하지 않고 최소한의 건축구성으로 서원의 품위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건축적 특징이 있다. 대규모 건축물이나 수를 늘이는 건축행위를 스스로 추구하지 않고 검소와 청빈으로 대변되는 선비정신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담겨있다. 선비가 추구하는 최고의 덕목은 이기심을 버리고, 권력과 물욕을 이겨내어 예로 돌아가서 모든 사람이 공존하고 공생하자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많은 서원이 경쟁적으로 점차 확장되어가는 추세에서도 무성서원이 애초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선비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검박한 선비정신이 담겨 있기에 무성서원의 건축적 의미는 더욱 가치가 있다.



무성서원 배치도



현가루 絃歌樓



강당



泰山祠



1

3

2

1. 태산사 泰山祠
2. 태산사 현판
3. 강수재 講修齋



무성서원 배치모습



## 8) 무성서원의 제향인물

### (1) 고운 최치원孤雲 崔致遠

최치원崔致遠, 857~미상은 신라 857년(헌안왕 1)에 전라도 옥구에서 태어났다. 12세 때 당나라에 들어가 18세에 진사가 되어 현위縣尉의 벼슬을 지냈다. 신라로 귀국하려 할 때 마침 황소의 난이 일어나자 유명한 '토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써서 천하의 문장가로 이름을 떨치고 전중시어사殿中侍御使를 제수 받았다.

28세가 되던 884년(헌강왕 10) 당 희종이 신라 왕에게 내리는 조서를 가지고 귀국하자 헌강왕은 기뻐하며 그를 총애하였다. 시독 겸 한림학사로 임명되어 신라 조정에서 당에 올리는 표문을 비롯한 문서를 맡아 작성하는 임무를 맡았으나 이듬 해 헌강왕이 승하하면서 외직인 태산태수로 부임하였다. 그가 지방의 수령으로 부임하게 된 것에 대해 『삼국사기』에는 '최치원이 당나라에 유학해 얻은 바가 많아 자신의 뜻을 펴 보려 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의 의심과 시기가 많아서였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유학과 인재이자 왕으로부터 아낌을 받던 그를 시기하는 세력이 조정내에 많았으므로 외직을 수락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진성왕 때 합천의 가야산에 들어가 그 곳에서 남은 생애를 마쳤다. 최치원은 한국 유학사상 최초의 도통道通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지증·낭해·진감 등 선종 승려들의 탑비문인 사산비명四山碑銘을 쓴 것으로도 유명하다. 저서로 『계원필경桂苑筆耕』 등 20권이 있다. 고려 1020년(현종 11)에 문창文昌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최치원 위패

### (2) 불우현 정극인不憂軒 丁克仁

정극인丁克仁, 1401~1481은 영광정씨靈光丁氏이며 경기도 광주에서 태어나 1429년(세종 11) 사마시에 합격하였다. 세종이 태조가 건립한 흥천사의 사리전을 수리하려고 하자 태학생들과 함께 동맹휴학인 권당捲堂을 일으켰고, 이 일로 1437년(세종 19)에 처향(고현古縣내의 구고<sup>04</sup>임씨九阜林氏)인 태인으로 내려와 3칸의 불우현不憂軒을 짓고 은거하였다. 51세 때에는 초야에 묻혀있는 선비인 유일遺逸로 천거되어 관직에 나아갔고, 53세 되던 1453년(단종 1)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태인현 훈도·전주부교수·성균관 주부·사간원 헌납·정언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사직하고 다시 태인에 은거하여 고현동에서 자제들을 가르치며 향풍을 바로잡고 동민의 화합을 도모하였다. 이때 그가 실시한 것이 바로 중국 남전여씨향약을 모범으로 한 고현동의 '동중향음주례洞中鄕飲酒禮'라는 친목계이다. 바로 이것이 고현동향약의 시초가 되었다.



정극인 위패

### (3) 영천자 신잠靈川子 申潛



신잠 위패

신잠申潛, 1491~1554은 고령신씨高靈申氏이며 자는 원양元亮, 호는 영천자靈川子 또는 아차산인峨嵋山人이다. 1519년(중종 14)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었고, 1521년(중종 16) 신사무옥辛巳譴獄 때 안처검의 옥사에 관련되어 전라도 장흥에 유배되었다가 양주楊州로 이배되었으며, 뒤에 풀려났다. 그 뒤 20여 년 간 아차산에 은거하며 서화에 몰두하였으며, 다시 복직되어 1543년(중종 38) 태인현감으로 부임한 후 7년 동안 많은 치적을 남겼다. 1553년(명종 8) 상주목사에 임명되어 재직 중 사망하였는데,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부모처럼 받들었다고 한다.

신잠은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삼절三絶이라 불렸는데, 특히 묵죽墨竹과 포도 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저서에는 『영천집靈川集』이 있으며, 그림에 「설중기려도雪中騎驢圖」 등이 있다.

### (4) 놀암 송세림訥菴 宋世琳



송세림 위패

송세림宋世琳, 1479~1519은 여산송씨礪山宋氏로 자는 헌중獻中, 호는 놀암訥菴이다. 1479년(성종 10) 태인(지금의 칠보면 시산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20세에 사마시에 합격해 1503년(연산 9)에 이조좌랑을 역임하였다. 은퇴한 후 불우현 정극인이 창설한 향학당을 중흥시켜 향리의 자제교육에 진력하였던 공이 있다. 당대 문명을 떨쳤으며 그림과 글씨에 모두 뛰어났다고 한다.

### (5) 묵재 정언충默齋 鄭彦忠



정언충 위패

정언충鄭彦忠, 1479~1557은 경주정씨慶州鄭氏로 자는 양구良久, 호는 묵재默齋이며 태인에서 태어났다. 인품이 엄중하여 말은 신중하고 적었지만, 바른 일을 실천함에는 더함이 없이 민첩하였다고 평가 받는 인물이다. 진사로서 과거에 뜻을 두지 않고서 오로지 도학에 힘썼고 특히 역학에 밝았다고 전한다. 또한 효행이 지극하여 3년간 시모하였다. 일재 이항一齋李恒, 1499~1576과 함께 유생을 가르치는 사우로 향학을 부흥시켜 향리의 후진 교육에 온 힘을 다하였다. 정언충은 1630년(인조 8)에 제향되었다.

#### (6) 성재 김약묵 誠齋 金若默

김약묵 金若默, 1500~1558은 도강김씨 道康金氏로 자는 태용 太容, 호는 성재 誠齋이며 곡성 관아에서 태어났다. 1540년(중종 35)에 별시에 급제하여 성균관직강·한산군수 등을 역임하고 사성·집의를 거쳐 1557년(명종 12)에 양주목사로 부임하였다가 이듬 해 양주 관아에서 59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약묵은 1630년(인조 8)에 제향되었다.

#### (7) 명천 김관 鳴川 金灌

김관 金灌, 1575~1635은 도강김씨 道康金氏로 자는 옥이 沃而, 호는 명천 鳴川이며 고현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효성이 지극하였고 가훈을 이어받아 성장하면서 불우헌 정극인과 놀암 송세림이 세운 향학의 전통을 이어 향학당 嚮學堂에서 향리자제들을 가르쳤다. 1615년(광해 7)에 진사시에 합격 하였으나 마침 그 때가 광해군의 난정으로 폐모사건이 일어나자 향리에서 송치중 宋致中, 김감 金堪 등과 송정 십현지회 松亭十賢之會를 만들어 초야에 묻혀 지냈다. 1627년(인조 5) 정묘호란 중 사계 김장생의 창의에 동참하여 의곡 義穀을 모집하는데 성심을 다하였다. 김관은 1675년(숙종 1)에 추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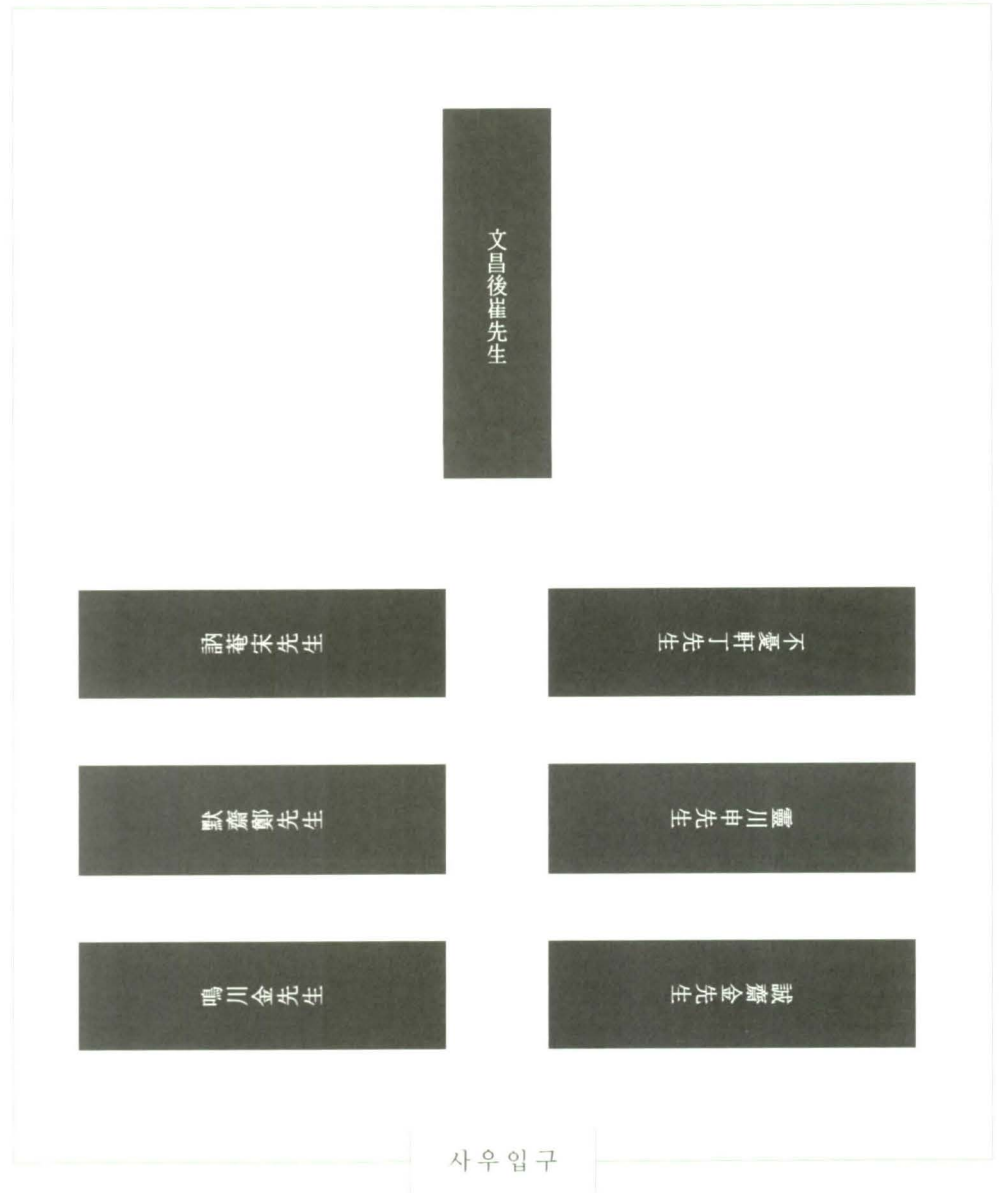


김약묵 위패



김관 위패

# 무성서원위차도(武城書院位次圖)





## 2. 무성서원의 향사

무성서원의 향사는 원래 춘추향사와 매월 삭망분향례가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유림들이 많이 흩어지고, 서원의 재정상황 악화 등의 이유로 지금은 삭망례는 하지 않고 향사도 매년 봄에 한 번만 봉행하고 있다.

### 1) 향사<sup>享祀</sup>

#### (1) 향사일시

현재 무성서원의 향사는 매년 음력 2월 중정일<sup>中丁日</sup>에 한 번만 봉행하는데, 조사해인 2011년에는 음력 2월 19일(양 3.23)이 중정일에 해당하였다. 봉행 시각도 종래에는 자정을 막 지난 새벽이었으나 지금은 유림들의 참례 편의를 위하여 당일 낮 11시에 시작한다.

#### (2) 향사준비

##### 장의회

2011년 3월 10일(음 2.6) 무성서원 장의회가 열렸다. 2주 후의 춘향사를 앞두고 삼헌관과 제관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이다. 초헌관은 2010년에 민선으로 당선된 김생기<sup>金生基</sup>(정읍시장)를 천망하기로 하고 아헌관은 이 고장 칠보 출신인 전북도립미술관장 이흥재, 그리고 종헌관에는 이 서원에 배향된 인물의 후손 중 한 사람을 선임기로 하여 김현충을 내정하였다. 직일<sup>直日</sup>은 무성서원 원장 이치백이 맡고, 집례는 태산선비문화사료관장 안성열, 축은 김환근이 각각 선임되었다. 그 외의 제관들 역시 이 고장 출신 유림으로서 예학에 조예가 깊고 향사에 봉무 경험이 있는 책임자들로 구성하였다.

祭官分榜記

初獻官 金生基  
 亞獻官 李興宰  
 終獻官 安進會  
 直日 李治白  
 典祀 趙翼煥  
 執禮 安成烈  
 祝 金煥根  
 陳設 金聖勳  
 奉香 王淳碩  
 奉爐 金相元  
 司樽 金石柱  
 奉爵 許鎭山  
 奠爵 宋基東  
 贊引 崔石泌  
 贊唱 安在格

辛卯二月仲丁 武城書院

제관분방기 祭官分榜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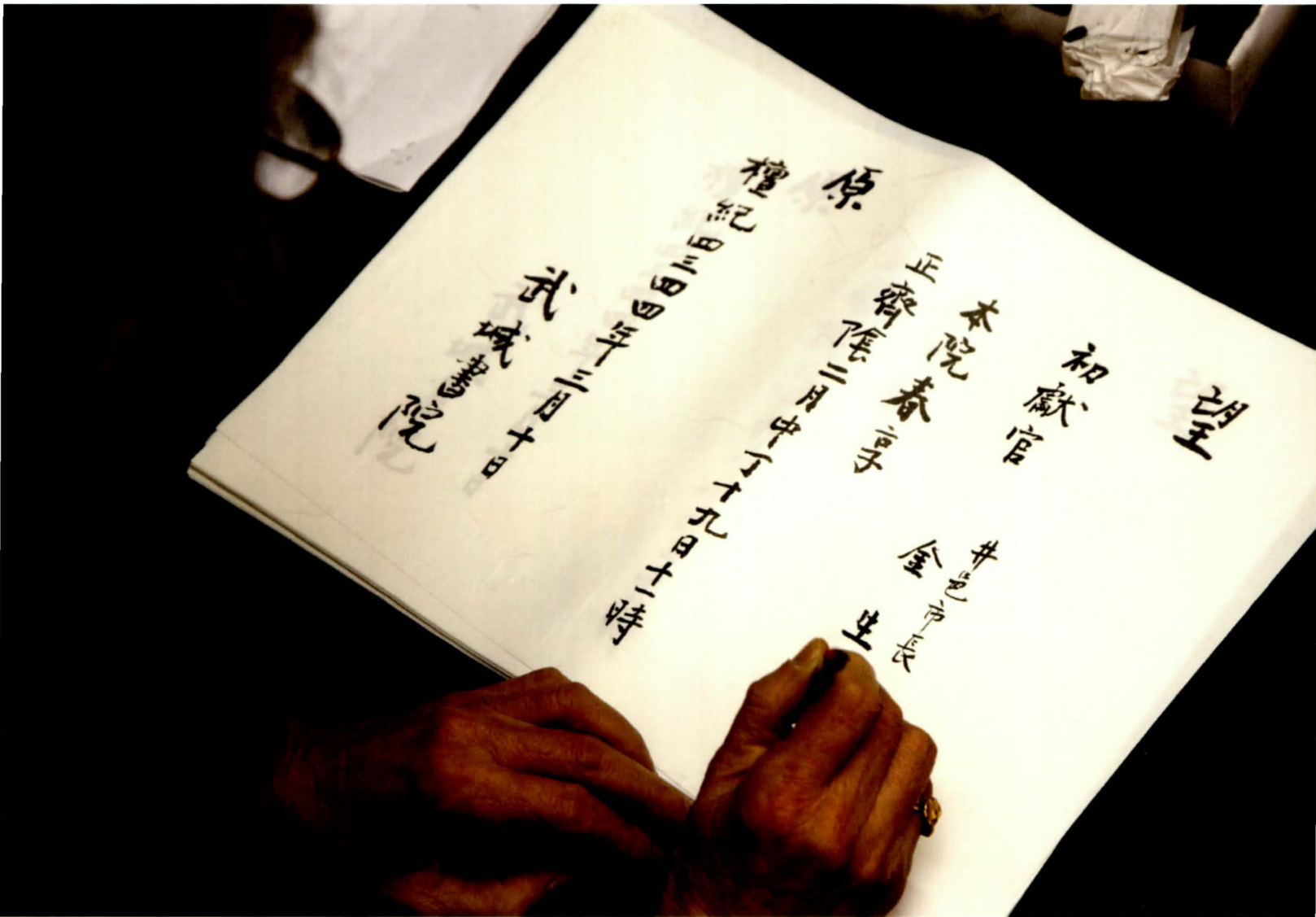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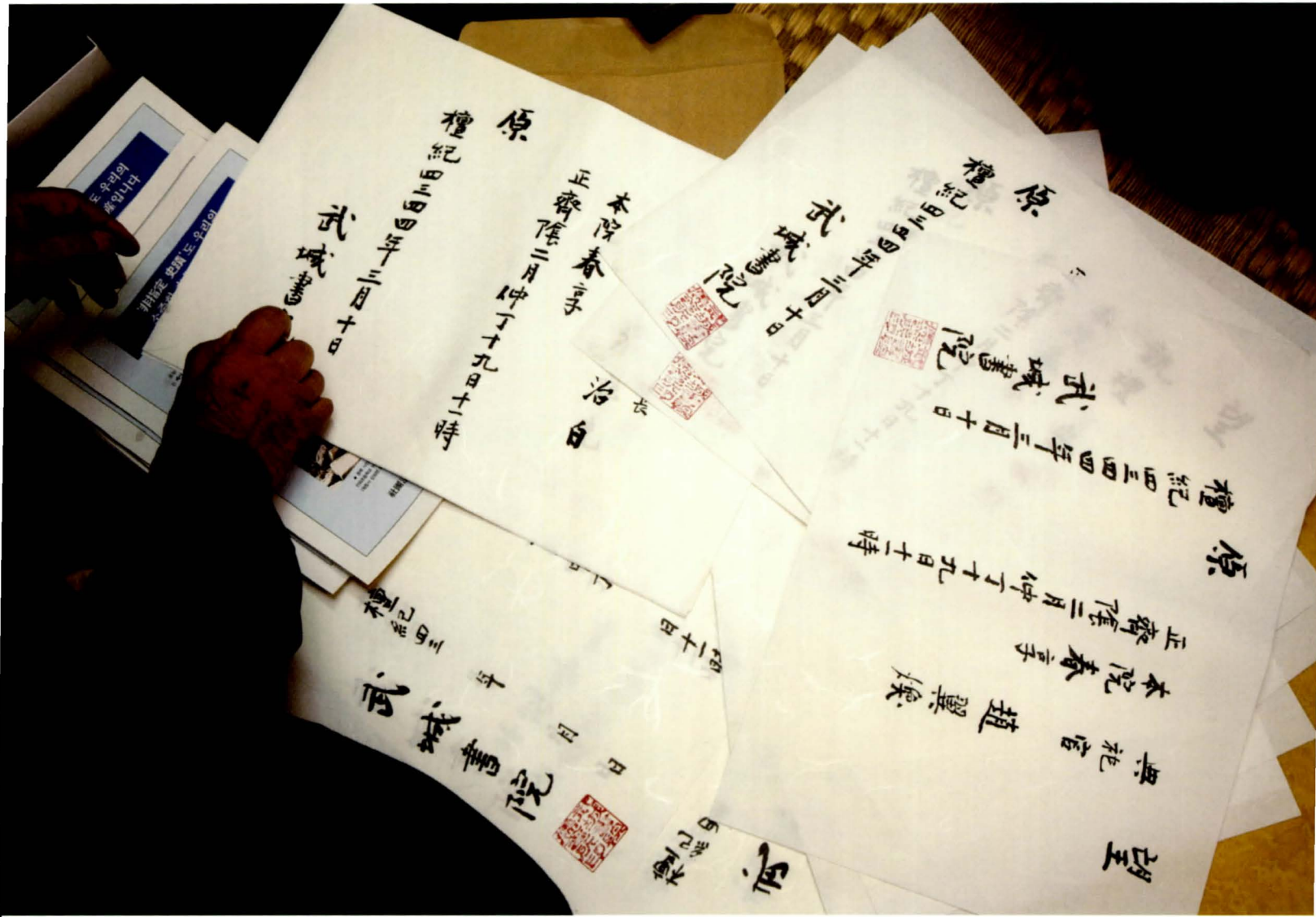
제관으로 내정된 사람들에게는 망첩<sup>망첩</sup>을 작성하여 보낸다. 망첩은 한지에 묵서로 제관의 소임과 성명, 향사일시를 명기하여 제관으로 천망함을 통지함과 동시에 수락의사를 묻는 문서로 서원의 직인을 찍어 피봉하여 발송한다.



1. 장의회의  
2. 제관분방기<sup>제관分榜記</sup> 작성







망첨에 서원의 직인을 찍는다.

望

初獻官

井邑市長

金生基

本院春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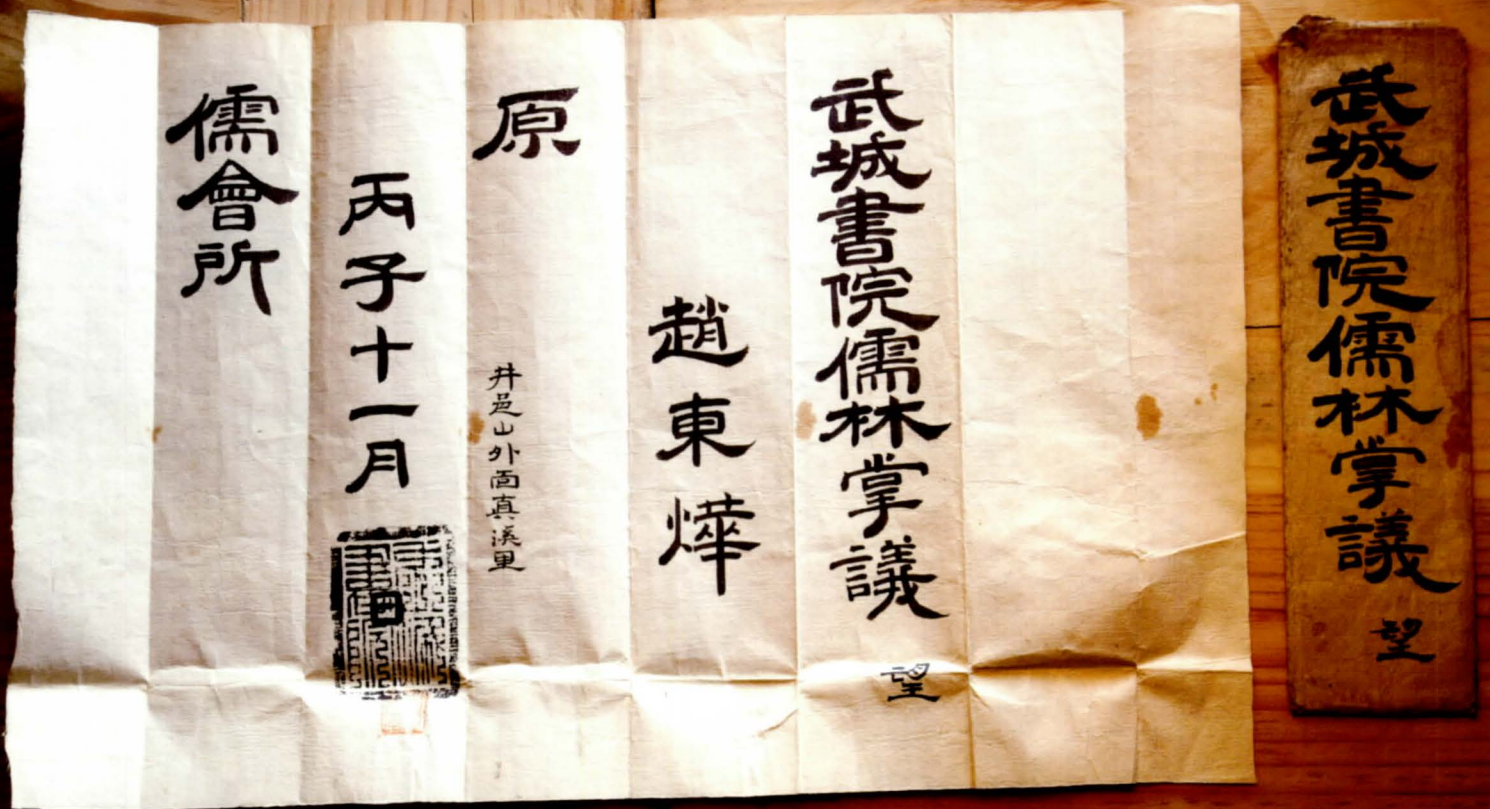
正齊陰二月仲丁十九日十二時

原

檀紀四三四年三月十日

武城書院





### 제수구입

향사 이틀 전 3월 21일(음 2.17) 무성서원 관리인 김흥기 등 유사들은 정읍 제 1시장에 가서 제수를 구입하였다. 본래 무성서원에서는 이 고장 5개 면이 이용하던 큰 전통시장인 칠보시장에서 장을 보았으나, 근래에는 교통이 편리해져서 정읍까지 나가서 장을 보게 되었고, 이에 칠보시장은 점점 퇴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향사에 쓸 용품의 대부분을 정읍에서 구입하고 희생으로 쓰는 육류만 칠보시장에서 구입한다. 희생(시생)으로 올리는 돼지도 옛날에는 검은 돼지를 직접 기르거나 구입하여 성생례 의식을 거쳐 제향에 올렸으나 지금은 칠보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향을 한 번 치르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약 200만 원으로 대부분 서원 자체예산으로 충당한다. 하지만 서원의 재정상태가 미약하여 일부는 유림들의 헌성금으로 보태쓰고 있는 형편이다. 제수를 구입할 때는 「무성서원 향사의절」에 적혀있는 제수물목을 미리 파악·작성하여 빠지는 물목이 없도록 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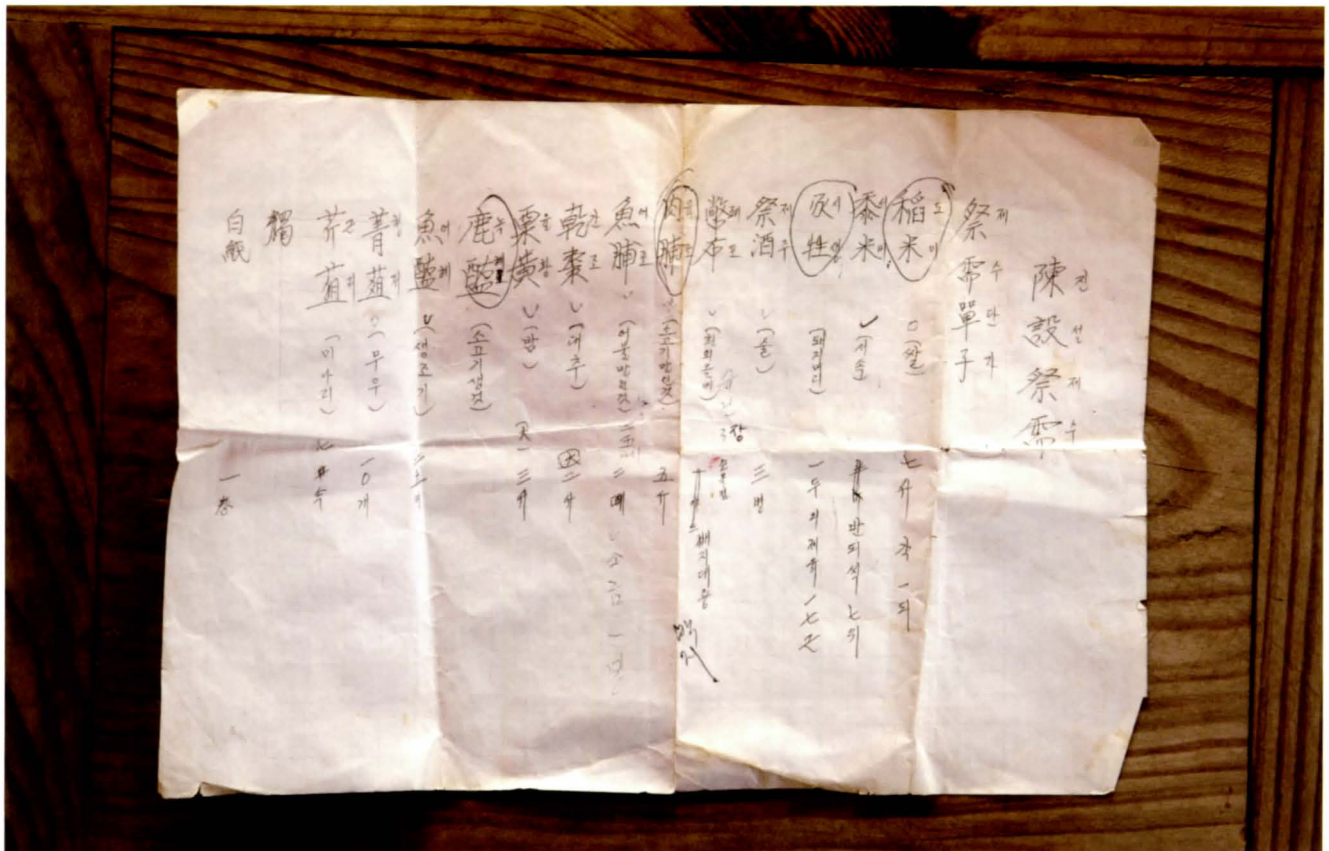
陳設祭需	祭需單子	稻米	黍米	豕牲	祭酒	幣布	肉脯	魚脯	乾棗	栗黃	鹿醢	魚醢	菁菹	芹菹	燭	白紙
		쌀	서속	돼지머리	술	흰외올배	소고기말린것	어물말린것	대추	밤	소고기생것	생조기	무	미나리		
		七升 諸位各一升	반되씩 七位	一頭外猪肉十七斤	三瓶	七張	五斤	35마리(조기)	大二升	大三升	一斤	25마리	10개	七束		一卷

1

2

1. 제수구입  
2. 제수 목록

제수 목록





제수구입



제수로 쓰일 회생 구입





### 제기뒹기

제향에 사용되는 제기와 제구도 미리 손질하고 점검해 둔다. 제기는 유기 제품이므로 광이 나게 닦고, 제향시 필요한 소요 수량도 잘 확인해 두어야 한다. 변두는 4변 4두로 차리는데 신위가 7위이므로 마른 제수를 담는 변변:죽기와 젖은 제수를 담는 두두:목기가 각각 28기씩이다. 보궈는 1보 1궈를 올리므로 쌀을 담는 보보와 기장을 담는 궈궈가 각각 7기씩이다.

술을 올리는 작작은 초헌 · 아헌 · 종헌에 각각 올리게 되므로 7위에 모두 21개가 소요되며 받침대인 잠잠도 짝을 이루어 같은 수량이다. 희생을 담는 조조와 폐백을 담는 비비도 신위의 수 만큼 필요하다. 그 밖에 술향아리인 준향준향과 향로 · 향합도 잘 점검해 둔다.



1. 사당청소  
2. 제기뒹기

## 축문작성

축문은 초헌례 때 신위께 언제, 누가, 왜 제향을 올리게 된 것인지를 고하는 고유문이다. 무성서원은 당초 고운 최치원을 제향하는 태산사로 출발하였다. 그 후 1544년(중종 39) 태인현감 신잠이 5년에 걸쳐 선정을 베풀다가 전임되어 가자 주민들이 생사당을 세워 제향하다가 태산사와 합사하였다. 1615년(광해군 7)에 이 고을 유림들이 서원을 세웠는데, 1696년(숙종 22)에 이르러 '무성서원'으로 사액받고 이후 불우헌 정극인·눌재 송세림·묵재 정언충·성재 김약목·명천 김관이 추가 배향되었다.

무성서원 옛 홀기에 의하면 최치원과 신잠을 주향<sup>主向</sup>으로 모시고 불우헌 등 4위를 배향하여 왔으나 근래에는 최치원을 주향으로 하고 신잠도 배향위에 포함하여 시대순으로 소목의 위치를 정하여 봉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종래에는 주향인 최치원과 신잠에게 각각 축문을 올렸으나 지금은 주향인 최치원에게만 축문을 올리고 신잠을 포함한 나머지 6위는 배식하고 있다.

維  
檀紀四千三百四拾四年歲次辛卯二月己未朔二拾三日丁丑  
井邑市長 金 生基 敢昭告于  
文昌侯孤雲崔先生 伏以 北學莫先 與道俱東  
倡我後蒙 萬古英風 茲值仲丁 精裡是宜 以  
牲幣庶品 式陳明薦 以  
不憂軒丁先生 訥庵宋先生  
靈川申先生 默齋鄭先生  
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  
配 尚饗

維  
檀紀四千三百四拾四年歲次辛卯二月己未朔二拾三日丁丑  
井邑市長 金生基 敢昭告于  
文昌侯孤雲崔先生 伏以 北學莫先 與道俱東  
倡我後蒙 萬古英風 茲值仲丁 精裡是宜 以  
牲幣庶品 式陳明薦 以  
不憂軒丁先生 訥庵宋先生  
靈川申先生 默齋鄭先生  
誠齋金先生 鳴川金先生 配 尚饗



### 제수와 제복손질

향사 하루 전, 서원 관리인 집에서 제향에 올리게 될 제수를 정성스레 준비한다. 보궐에 담을 쌀과 기장도 잘 씻어 놓고 변두에 차리게 될 포과와 해저류도 실찬하는 용기의 규격에 맞게 손질하여 품목별로 정돈한다. 대나무로 만든 변<sup>변</sup>에 담게 되는 제수는 건조<sup>乾</sup> : 대추 · 율<sup>栗</sup> : 밤 · 어포<sup>魚脯</sup> : 북어포 · 육포<sup>肉脯</sup> : 소고기 · 형염<sup>刑鹽</sup> : 소금으로 다섯 가지이고, 나무로 만든 두포<sup>豆</sup>에 담게 되는 제수는 근저<sup>芹菹</sup> : 미나리 · 청저<sup>菁菹</sup> : 무 · 녹해<sup>鹿醢</sup> · 어해<sup>魚醢</sup>의 네 가지이다. 육포는 녹포<sup>鹿脯</sup> : 사슴고기의 대용으로 이미 7~8일 전에 소고기를 미리 구입하여 말려서 준비하였고, 어해는 조기를 토막내어 사용한다.

1

2

1. 제수준비

2. 폐비정리



전폐례 때 신위께 올리는 예물인 폐백도 규격에 맞게 잘 접어서 신위별로 비篋:바구니에 담는다. 폐백은 원래 저포苧布:모시를 사용하는 것이 법식이나 지금은 저포를 구하기 어려워 면포나 한지로 대용하고 있다. 무성서원에서는 외올베 세 마를 구입하여 7등분으로 나누어 7위의 신위전에 각각 올린다.

제복은 모두 유복에 유건을 착용한다. 도포와 유건·슬대·행전 등 일습을 제관의 수대로 정돈하여 강당에 준비해 둔다. 이치백 원장은 이번 제향 때 헌관용 속옷과 고무신을 준비하는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 제수진설

제관들은 음력 2월 19일(양 3.23) 향사 당일 입재한다. 종래에는 전일 입재하였으나 지금은 교통이 편리해져서 당일 입재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오전 8시 제기를 미리 사당으로 운반한 후 이어서 제수를 사당으로 봉치한다. 모든 제기와 제수는 반드시 정문으로 들어간다. 특히 제물은 들것에 담아 두 사람이 메고 황톳길을 따라 외삼문 중문으로 들어가 강당 건물의 여간(중앙간)을 거쳐 내삼문의 중문으로 들어간다.

외삼문에서 사당까지 신성한 제물이 통과하는데 잡귀가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벽사<sup>辟邪</sup>의 의미로 붉은 황토로 길을 만드는 것이 특이하다. 그 길에는 오로지 제기와 제물만 지나갈 수 있고 사람들은 다니지 못하도록 통제된다. 다른 서원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광경이다.

벽사<sup>辟邪</sup>의 의미로 붉은 황토로 길을 만든다.



제물은 강당 건물의 여간(중앙간)을 거쳐 내삼문의 중문으로 들어간다.



준비된 제수를 소정의 제기에 담는 것을 실찬(實踐)이라 하고, 실찬한 제기를 법식에 맞게 제상 위에 차리는 것을 진설이라 한다. 제수는 사당 서쪽 당상에 진열해 놓고 소정의 제기에 담아 진설 창홀에 따라 진설한다. 진설은 정위·배위 구별없이 모두 5번 4두, 1보 1궐, 시성 1조를 진설한다. 이 날 무성서원에서 가장 오래도록 향사를 봉행해 온 원로 김동기옹(93세)이 진설에 참여했다. 그가 제수 품목을 부르면 집사들이 복창하고 주향에서부터 배향의 위치에 따라 차례로 진설하였다.



신위의 왼쪽(동쪽)에는 변<sup>변</sup>에 담아 녹포와 어포, 황율과 건조의 순서로 놓고 다음에 형염(소금)도 더하여 올린다. 신위의 오른쪽(서쪽)에는 나무로 만든 제기인 두<sup>두</sup>에 담아 녹해와 어해, 근저(미나리)와 청저(무)를 진설한다. 일반적으로 변두는 좌우 대칭이 되게 그릇의 수를 같이 차리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형염을 더하여 5변 4두의 형식이 되는 것이 특이하다.

보<sup>보</sup>는 변두의 사이에 놓는데 보<sup>보</sup>에는 도미<sup>도미</sup> : 쌀을 담아 신위의 왼쪽에, 궤<sup>궤</sup>에는 서미<sup>서미</sup> : 기장을 담아 신위의 오른쪽에 진설한다. 시성<sup>시성</sup>은 주향에는 돼지머리를 올리고 배위에는 돼지고기를 각각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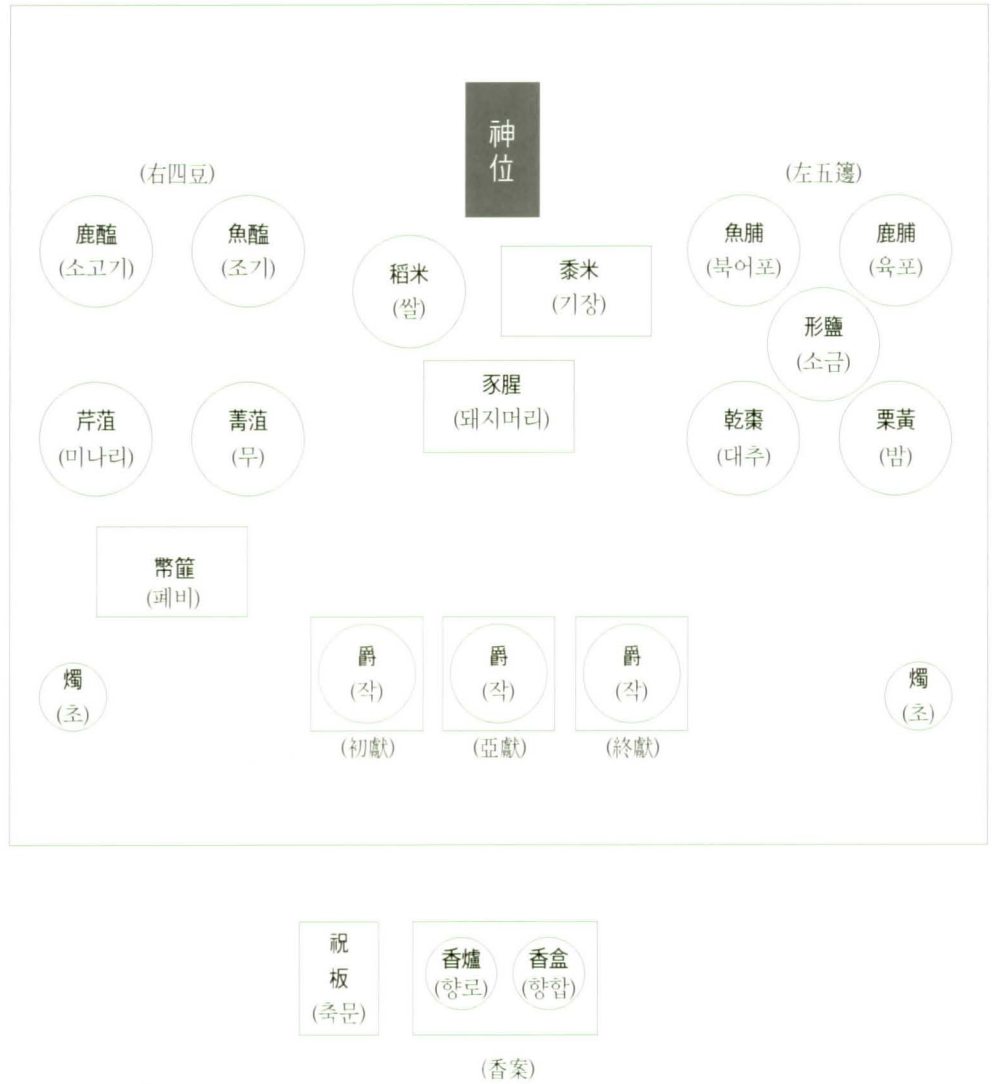
진설<sup>진설</sup>





진설된 모습

# 무성서원진설도(武城書院陳設圖)





### (3) 향사절차

오전 11시 행사를 시작한다. 강당 앞마당에 제관과 참례자들이 입장한다. 향사에 앞서 식전행사로 국민의례, 무성서원 소개, 배향 7현에 대한 약력 소개와 원장의 인사가 있었다.

1

2

1. 입정
2. 식전행사



이어서 집례의 창홀로 본 행사인 향사가 시작된다. 제관과 참례자 모두 문외위에 도열하면 찬인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사당에 들어가 진설을 살핀다. '점시진설'은 초헌관이 행례에 앞서 제물의 진설을 최종 점검하는 절차이다. 축이 따라 올라 신위의 위판을 개독하고 보궈의 뚜껑을 연다. 위패 정위에는 '문창후 최선생', 배위 동벽에 '불우헌 정선생' · '영천 신선생' · '정재 김선생' 3위, 서벽에 '눌암 송선생' · '묵재 정선생' · '명천 김선생' 3위의 위호가 적혀 있다.

점축點燭



점시가 끝나면 모두 문외위로 돌아간다. 축과 찬자, 찬인이 먼저 계간배위에 나아가 재배하고 이어서 학생 및 제집사가 재배한다. 제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봉무할 자리에 들어간다. 찬인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행사를 청하면 삼헌관이 재배하여 신을 맞이한다.

개독 開讀





창출

### 상향전폐례<sup>上香奠幣禮</sup>

상향전폐례는 초헌관이 신위전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폐백<sup>幣帛</sup>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관세한 후, 먼저 정위인 문창후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이때 봉향과 봉로는 따라 올라 봉향은 향합을 들고 헌관의 오른쪽에, 봉로는 향로를 들고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삼상향<sup>三上香</sup>을 돕는다. 축이 폐비를 받들어 초헌관에게 전달하면 헌관이 이를 받아 헌폐하고, 다시 대축에게 주어 신위전에 올린다.

다음은 배위인 동벽의 불우헌 신위전으로 인도하여 같은 방법으로 삼상향하고 전폐한다. 봉향과 봉로가 상향례를 돕고, 축이 전폐를 돕는 것은 정위에서와 같다. 이어서 소목의 위치 순으로 서벽의 놀암, 동벽의 영천, 서벽의 묵재, 동벽의 성재 마지막으로 서벽의 명천까지 차례차례 상향전폐례를 행한다. 정위와 배위 7위에 대한 삼상향과 전폐가 끝나면 초헌관은 자리로 돌아간다.



### 초헌례<sup>初獻禮</sup>

초헌례는 신위께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의례이다.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로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선다. 봉작이 작을 들고 헌관의 좌측에 서면, 사준이 맥(鬯개)을 들고 술을 따른다. 감작<sup>監作</sup>이 끝나면 초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주향인 문창후의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는다. 봉작이 초헌관에게 작을 드리면 초헌관은 이를 받아 헌작한 후 전작에게 주어 신위 전 서단 제 1점에 올린다. 초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는다. 축이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꿇어앉아 축문을 읽는다.

독축이 끝나면 초헌관은 다시 준소에 가서 술을 따르는 것을 살피고, 배위인 동벽의 불우헌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한다. 이어서 차례로 준소에서 술을 받아 놀암 · 영천 · 목재 · 성재 · 명천 신위전에 헌작하여 초헌례를 마친다.



1	2
---	---

1. 헌작獻辭
2. 독축讀祝

# 아헌례亞獻禮

아헌례는 신위께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순서이다. 아헌관은 찬인의 인도를 받아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준소에 나아가 사준이 작주하는 것을 살핀 후 신위전에 나아가 헌작한다. 축문 낭독이 없고 작을 두 번째 작점에 올리는 것만 다를 뿐 모든 절차는 초헌례 때와 같다. 배위에 대한 헌작례 역시 초헌례 때와 꼭 같다.



배향위의 두 번째 작점에 전작



## 종헌례 終獻禮

종헌례는 아헌례의 절차와 같다. 다만 헌관이 바뀌고 세 번째 작점에 작을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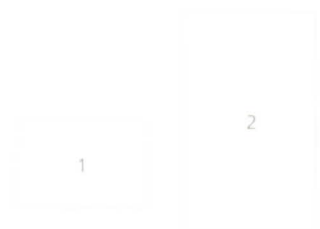
1. 종헌관이 준소 앞에 동향하여 작주하는 것을 살핀다.
2. 헌작 후 종헌관이 제자리로 돌아온다.





## 음복례 飮福禮

음복례는 초헌관이 음복위에 나아가 신이 흠향한 술과 안주를 맛보는 의례이다. 묘우의 당상 동문 앞에 서쪽을 향하여 음복위를 마련한다. 찬인이 초헌관을 음복위로 인도하면 서향하여 꿇어앉는다. 대축이 준소에 가서 작<sup>冊</sup>에 복주를 뜨고 장찬이 조<sup>俎</sup>에 신위전의 조육을 조금씩 덜어낸다. 대축이 초헌관의 왼쪽에 꿇어앉아 작을 초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이 받아 마시고 작을 봉작에게 돌려준다. 장찬이 조육을 초헌관에게 드리면 초헌관이 받아 집사에게 주어 작점 위에 놓는다. 음복수조를 마치면 초헌관은 자리에 돌아가서 삼헌관이 모두 함께 재배한다.



1·2. 음복례 飮福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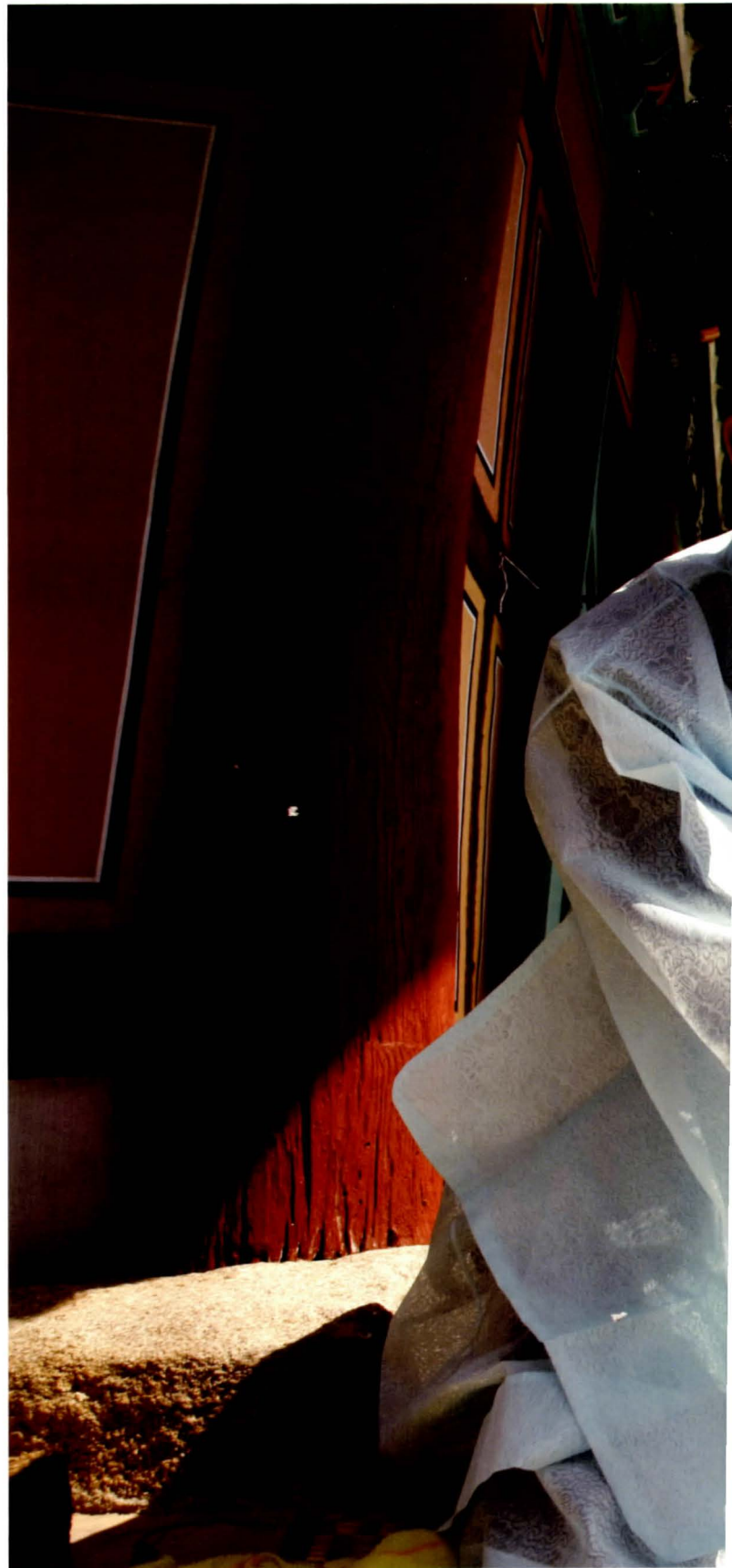
삼헌관 재배

**철변두**撤邊豆

음복수조가 끝나면 축이 들어가 철변두한다. 철변두는 제향이 끝나고 제물을 거두는 의례이다. 축이 신위 전에 나아가 각위의 변두를 하나씩 조금 옮겨놓는 것으로 같음한다. 철변두가 끝나면 참례자는 모두 함께 재배하여 신을 보내드리는 송신례를 행한다.

**망예례**望禮禮

망예례는 제향을 마치고 축문과 폐백을 땅에 묻는 의례이다. 초헌관이 찬인의 인도를 받아 묘우 서쪽에 있는 망예 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축이 축문과 폐백을 거두어 서쪽 계단으로 내려가 감<sup>坎</sup>:구덩이에 묻는다. 실제로는 태우고 묻는다. 찬인이 초헌관을 자리로 인도하면 축이 초헌관의 왼편에 나아가 예필을 아뢴다. 이로써 향사의 모든 의례를 마치고 찬인이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가면 아헌관 이하 모두 따라 나간다. 다음으로 집례와 제집사 모두 계간 배위로 내려가 재배한 후 나간다. 축은 사당에 들어가 합독하고 장찬은 철찬하고 문을 닫고 물러난다.



망예례望禮禮



향사가 끝나면 모두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점심식사를 한다. 현재는 점심식사가 음복을 대신한다. 예전에는 서원에서 음식을 장만하여 동네 주민들에게까지 음식을 대접하였으나 지금은 간단하게 인근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해결하고 있다. 식사를 마치면 향사에 참여한 제관들에게는 감사의 의미로 행자(여비)와 향사에 쓰인 제물을 나눠준다. 제관들은 이것을 받아들고 삼삼오오 집으로 돌아간다.

향사에 쓰인 제물은 나누어 포장한다.



항사가 끝난 후 돌아가는 유림들



## 2) 제물<sup>祭物</sup>과 제구<sup>祭具</sup>

서원향사에 쓰는 제기와 제물은 국가전례인 향교의 석전<sup>釋奠</sup>의 예에 준하여 올린다. 국가 전례는 대사·중사·소사로 구분되어 제사의 위격<sup>位格</sup>에 따라 차리는 제수의 종류 및 품수<sup>品數</sup>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국조오례의』와 『태학지』 등의 예전<sup>禮典</sup>에 규정된 제기의 종류와 예찬<sup>禮譔</sup>을 참고하여 무성서원의 제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변<sup>邊</sup> · 두<sup>豆</sup>

변<sup>邊</sup>은 마른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왼쪽(동쪽)에 차리고, 두<sup>豆</sup>는 물기 있는 제수를 담은 그릇으로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차린다. 변은 대나무로 만들어 죽변이라 하고 두는 나무로 만들어 목두라고 한다. 국가대사에는 12변 12두를 차리고, 중사에는 10변 10두, 소사에는 8변 8두 이하를 차리는 등 제격에 따라 품수에 차등을 둔다. 조선시대 관학<sup>官學</sup>인 향교석전은 소사의 예에 해당하므로 8변 8두를 차리는데, 사학<sup>私學</sup>인 서원은 그보다 낮추어 4변 4두 이하로 진설한다.

일반적으로 변두는 좌우가 대칭되게 4변 4두로 진설하는데 무성서원에서는 좌변에 녹포<sup>鹿脯</sup> : 육포로 대신 · 어포<sup>魚脯</sup> : 북어포 · 율황<sup>栗黃</sup> : 밤 · 건조<sup>乾棗</sup> : 대추 · 형염<sup>刑鹽</sup> : 소금의 다섯 가지를 차리고 우두에는 녹해<sup>鹿醢</sup> : 소고기로 대신 · 어해<sup>魚醢</sup> : 조기 · 근지<sup>芹菹</sup> : 미나리 · 청저<sup>菁菹</sup> : 무 네 가지를 차려 5변 4두로 진설하고 있다.

변<sup>邊</sup>두<sup>豆</sup>

### 보<sup>俎</sup> · 궤<sup>醢</sup>

보<sup>俎</sup>는 동으로 만든 제기인데 몸통과 뚜껑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는 네모나고 궤<sup>醢</sup>는 둥글다. 보<sup>俎</sup>에는 도<sup>稻</sup> : 쌀과 량<sup>梁</sup> : 기장을 담고, 궤<sup>醢</sup>에는 서<sup>黍</sup> : 기장과 직<sup>稷</sup> : 피알을 담는다. 보와 궤는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놓는데 보는 신위의 왼쪽(동쪽)에, 궤는 신위의 오른쪽(서쪽)에 진설한다. 향교 석전에서는 2보 2궤를 쓰는데 서원에서는 줄여서 보통 도와 서를 담은 1보 1궤를 올리는데 무성서원에서도 1보 1궤로 하여 도미와 서미를 진설한다.

보<sup>俎</sup>궤<sup>醢</sup>

### 조<sup>俎</sup>

조<sup>俎</sup>는 소 · 양 · 돼지 등의 희생<sup>犧牲</sup>을 담은 제기이다. 현재 성균관 석전에는 대사의 예에 따라 우성<sup>牛腥</sup> : 소 · 양성<sup>羊腥</sup> : 양 · 시성<sup>豕腥</sup> : 돼지의 삼생<sup>三牲</sup>을 쓰고, 향교 석전에는 양성 · 시성 두 가지를 올린다. 무성서원 향사에는 시성 한 가지만을 올리는데 정위에는 돼지머리를 배 위에는 각각 돼지고기 육괴<sup>肉塊</sup>를 사용한다.

조<sup>俎</sup>



비篋

### 비篋

비는 신위에게 드리는 예물인 폐백幣帛을 담는 대나무로 만든 광주리이다. 폐백은 원래 예서에는 저포苧布·모시를 사용하였는데 지금은 보통 면포나 한지 등으로 대용하고 있다.



작爵·점拮

### 작爵·점拮

작爵은 제향 시 신위에 술을 올리는 동銅으로 만든 술잔이다. 위로는 두 개의 기둥이 있고 아래에 세 발이 달려 있다. 석전의釋奠儀에 말하기를, “작爵의 무게는 1근 8량兩이요, 기둥을 합한 높이는 8촌 2푼이며, 깊이는 3촌 3푼이다. 아가리의 직경直徑은 6촌 2푼이요, 넓이는 2촌 9푼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있고, 유流와 반금扳金이 있다”고 했다. 시 예기도설詩禮器圖設에 말하기를 “마시는 그릇으로서 한 되를 담을 만하고, 위의 두 기둥은 마셔도 다하지 않는다는 뜻을 취한 것으로, 지나침을 경계한 것이다(飲器受一升 上兩柱取飲不盡之義 戒其過也)”라 하였다. 작은 정위와 배위 각 신위 마다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준비한다.

점拮은 축판祝版이나 작爵을 올려놓기 위하여 동으로 네모나게 만든 평평한 받침인데, 축판을 올려놓는 것은 축점祝拮, 작을 올려놓는 받침을 작점爵拮이라고 한다. 작점은 각 신위마다 작과 짝을 이루어 초헌·아헌·종헌용으로 셋씩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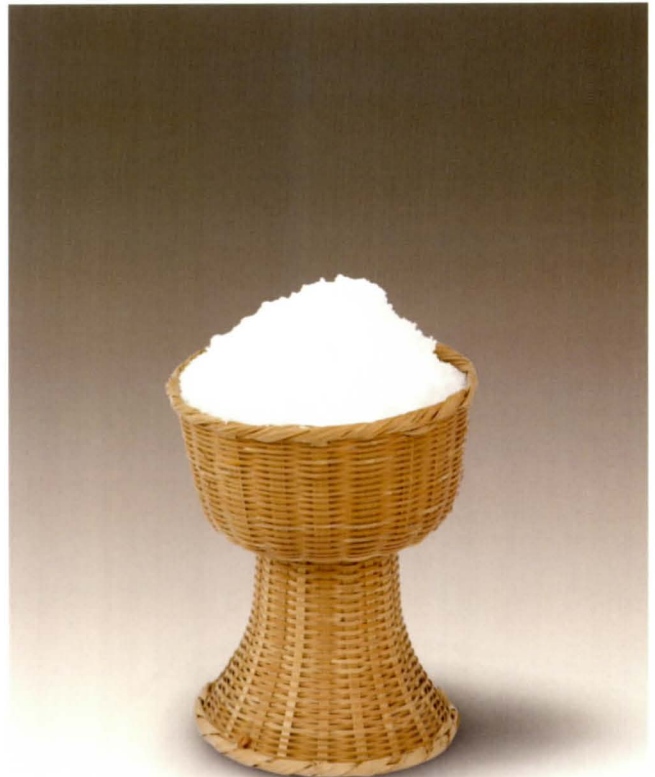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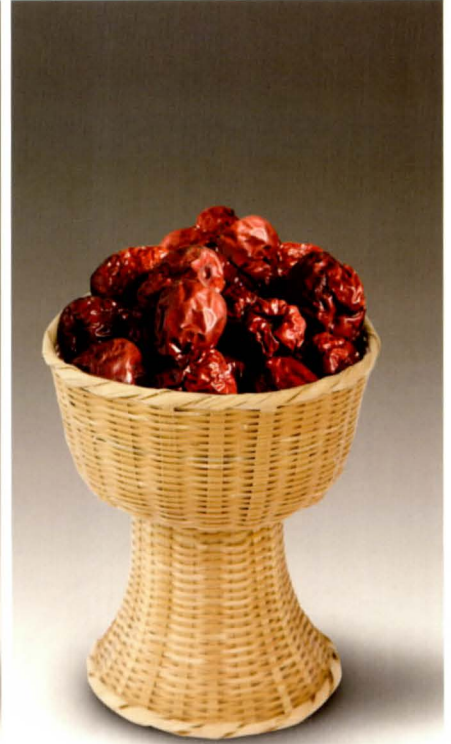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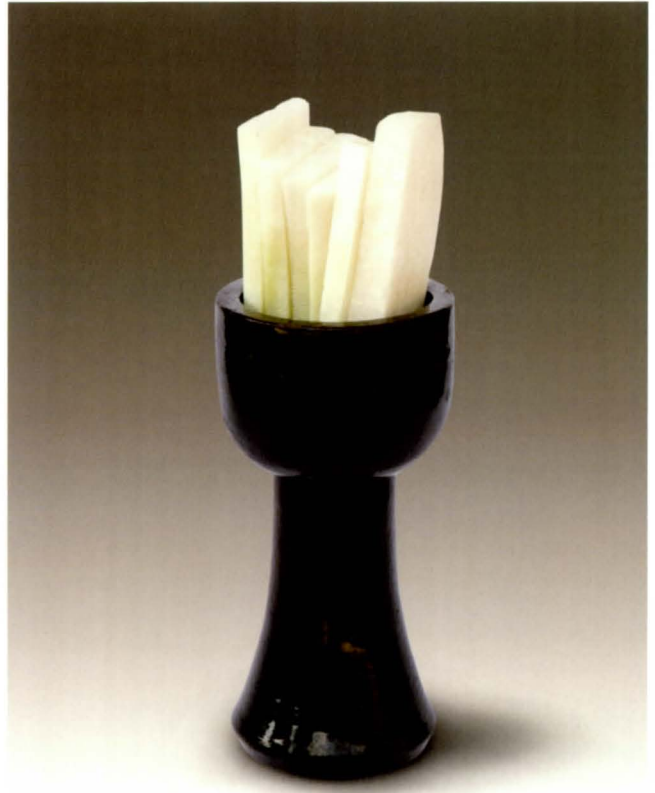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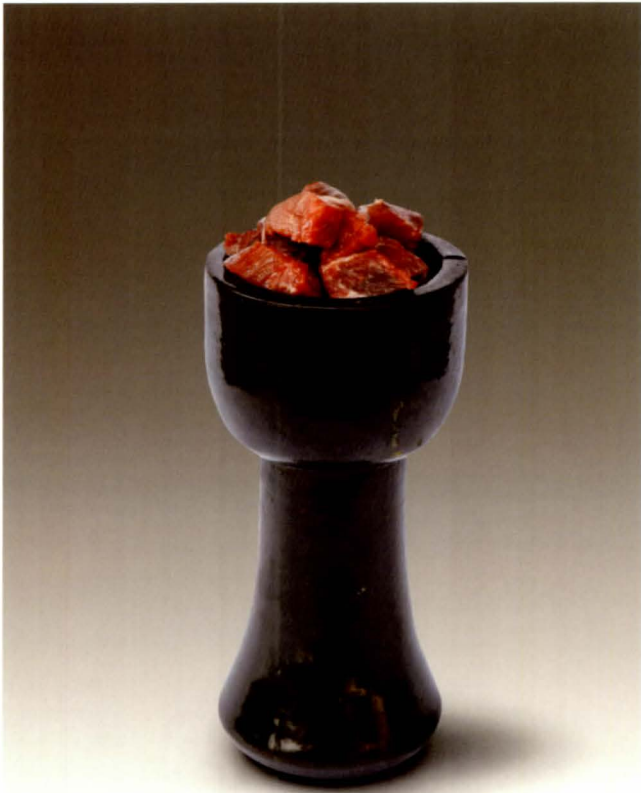
준尊과 작勺

### 준尊·작勺·먹爵

준尊은 제향 때 사용하는 동으로 만든 술항아리이다. 향교석전에는 초헌용으로 예제禮齊를 담는 희준犧尊, 아헌용으로 양제盞齊를 담는 상준象尊, 종헌용으로 청주淸酒를 담는 산뢰山罍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원에서는 구별 없이 산뢰 하나만을 사용한다.

작勺은 준소와 관세위에서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와 같은 기구이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를 조각하여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먹爵은 술 항아리를 덮는 덮개이다.





두에 담긴 제수



### 3. 무성서원 향사의 특징

무성서원 향사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성서원은 서원이 세워진 기원에서부터 다른 서원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제향인물이 죽은 후에 후학들이 그의 학덕을 기리기 위하여 세우게 되는데 무성서원은 생사당(生祠堂)에서부터 출발하여 후에 서원으로 발전한 예다. 생사당이란 생존해 있는 사람을 모시는 사당으로 신라시대 대문호이며 정치가인 고운 최치원이 887년(정강왕 1)에 태산(현 태인) 태수로 재임 중에 선정을 베풀다가 군수로 전임하게 되자 주민들이 그를 흠모한 나머지 그의 생전에 생사당을 세우고 태산사(泰山祠)라고 부르게 되면서 비롯하였다. 그 후 고려 말엽에 훼손된 것을 1484년(성종 15)에 다시 세웠다. 원래 태산사는 성황산 남쪽 월연대에 있었다. 그리고 1544년(중종 39) 태인현감 신잠(申潛)이 5년에 걸쳐 선정을 베풀다가 강원도 간성군수로 전임되어 가자 주민들이 또 생사당을 세워 제향하다가 고운의 태산사와 합사하였다. 그 후 1615년(광해군 7) 이 고을 사람들이 서원을 세웠고, 1696년(숙종 22)에 이르러 '무성서원'이란 사액을 받음으로서 비로소 사액서원으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불우현 정극인·눌제 송세림·묵재 정언충·성재 김약묵·명천 김관을 추가 배향하였다.

둘째, 서원의 향사의례는 두 사당을 합사하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고운 최치원과 영천 신잠 양위를 주향으로 하고 불우현 정극인·눌제 송세림·묵재 정언충·성재 김약묵·명천 김관을 배향으로 하여 제향하였으나 지금은 고운 최치원 1위 만을 주향으로 하고 영천 신잠을 포함하여 6위를 배향으로 하여 소목을 위치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사의례 절차가 달라지게 되었다.

무성서원 옛 홀기에 의하면 최치원과 신잠을 주향으로 하기 때문에 양 신위의 위치가 지금과 다르고 초헌례 때에 독축도 각각 따로 하게 되어 있었다. 초헌례 때에 헌관은 두 신위에 삼상향·전폐·전작·독축을 각각 행한 다음에 배향 5위에 대하여 삼상향·전폐·전작을 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최치원만을 주향으로 하기 때문에 독축은 최치원에게 한 번만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신잠은 주향에서 배향으로 되고 배향 6위의 위치는 시대순으로 하여 동벽의 제 1위에 불우현 정극인, 서벽의 제 1위에 눌암 송세림에 이어 동벽의 제 2위에 신잠이 자리하고 있다. 옛 홀기에 전폐례는 초헌례에 포함하여 행하였으나 현행 홀기에는 초헌례에 앞서 '상향전폐례'를 행한 후에 초헌례를 행하는 것으로 분리시켰다.

셋째, 무성서원은 외삼문인 누문(현가루)에서 강당을 거쳐 내삼문, 사당에 이르기까지 남북 일직선 상에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다. 제물을 사당에 봉지할 때 외삼문 밖에서부터 강당의 앞마당에 황토흙으로 신로를 조성하고 그 길을 통하여 제물을 받들어 모신다. 황토흙의 길을 만드는 것은 이 서원의 특징인데, 선현께 올리는 제물을 신성시하여 일체의 사된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게 한다는 벽사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민간신앙과 습합된 의례로 보인다.

넷째, 무성서원은 생사당이 세워진 때부터 기원을 삼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서원이며, 대원군의 서원철폐시에 훼손되지 않은 전북지방의 유일한 서원으로서 그 위상이 높다. 주향인 고운 최치원은 일찍이 당나라에 유학, 빈공과에 급제하여 외국에서 문명을 떨친 문장가로서 고려 1020년(현종 10) 최초로 문묘에 배향된 유학자이며 배향된 6위는 조선시대 이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였거나 이 고장 출신으로서 학덕이 높은 유학자들로서 존송되어온 명사들이다. 이러한 강학활동의 전통을 통하여 배출된 이 지방 선비들이 을사늑약 이듬 해인 1906년(병오)에 이 서원을 중심으로 80여명이 항일의병을 일으킨 현장이기도 하다. 서원 우측에 서 있는 '병오창의기적비'가 무성서원 강학활동의 맥과 의리를 실천하는 숭고한 선비정신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훌륭한 전통에 비추어볼 때 현재는 민족정기의 전승이나 존현의식이 많이 희박해져 가고 있다. 서원의 취약한 재정형편으로 향사도 춘추로 행하던 것이 한번으로 줄어들었고,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매월 삭망분향례도 행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고장은 일찍이 유학이 뿌리를 내려 많은 선비들을 배출하고 불우현 정극인의 문학향으로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며 또한 우리나라 향약의 발상지로 순후한 풍속의 역사문화 마을이다. 이러한 전통을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하여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4. 무성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운영과 조직

무성서원은 서원철폐령이 있을 때에도 훼손되지 않은 서원으로, 전라도 지역 유림들의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특히 1906년 병오창의(丙午倡義)의 발원지로서, 무성서원에 80여 명의 의사가 모여 창의를 발의했다. 무성서원은 이렇듯 의기가 높은 선비를 품은 서원이었다.

04 원규의 상세 내용은 참고자료(110쪽)로 수록해 놓았다.

서원의 기강과 원생들의 학문적 성향은 그들을 규율하는 원규를 통해 비추어 볼 수 있다. 무성서원의 원규의 내용<sup>04</sup>은 『무성서원원지(武城書院院誌)』에 수록된 것과 1924년(甲子)에 별도로 제작된 『무성서원원규(武城書院院規)』가 전한다.

무성서원의 원지는 1884년과 1936년에 발행되는데 이 두 시기의 원지에 수록된 원규는 동일하다. 이 원규에는 무성서원의 교육목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등 일체의 교육과정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서원에는 나이와 귀천을 불문하고 독서하여 학문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서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다[人齊之規無論長幼貴賤有志讀書爲學者皆可入院書]. 그럼에도 입교한 한 후에는 어느 서원과 같이 엄격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원규를 통해 짐작해볼 수 있다. 독서에 임할 때는 용모를 정돈하며 절대 서로 잡담해서는 안 되었고[讀書必整容危坐專心致志務窮義理無得相顧談話], 또한 의관을 단정하게 하되 너무 편하게 입어서도 안 되고 화려함이 지나쳐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常時恒恒整衣冠無得褻衣自便亦不得着華過近奢之服].

다음으로 예를 중시하여 연장자에 대한 예를 강조하고 있는데, 좋은 자리는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먼저 자리를 선택해서도 안 되며, 연장자가 출입할 때는 젊은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 예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長者無得先自擇占長者出入時少者必起].

원규 내용 중에 주목할 부분은 송(宋)의 학자인 범씨(范氏)의 칠계(七戒)에 대한 언급이다. 이 칠계를 마음에 두고 눈여겨 볼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칠계의 내용은 주로 관직·재물·출사·여색 등에 대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 범씨(范氏)의 칠계(七戒)

① 조정의 이해와 변방의 보고와 관리의 파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

② 주현 관원의 장단점과 잘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

③ 여러 사람이 함께 범한 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不言衆人所作過之事)

④ 관직에 출사하는 일과 시속을 좇고 세력에 붙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

⑤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과 빈한함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五言財利多少厭貧求富)

⑥ 음탕하고 버릇없고 희롱하고 불경한 일과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않는다.

(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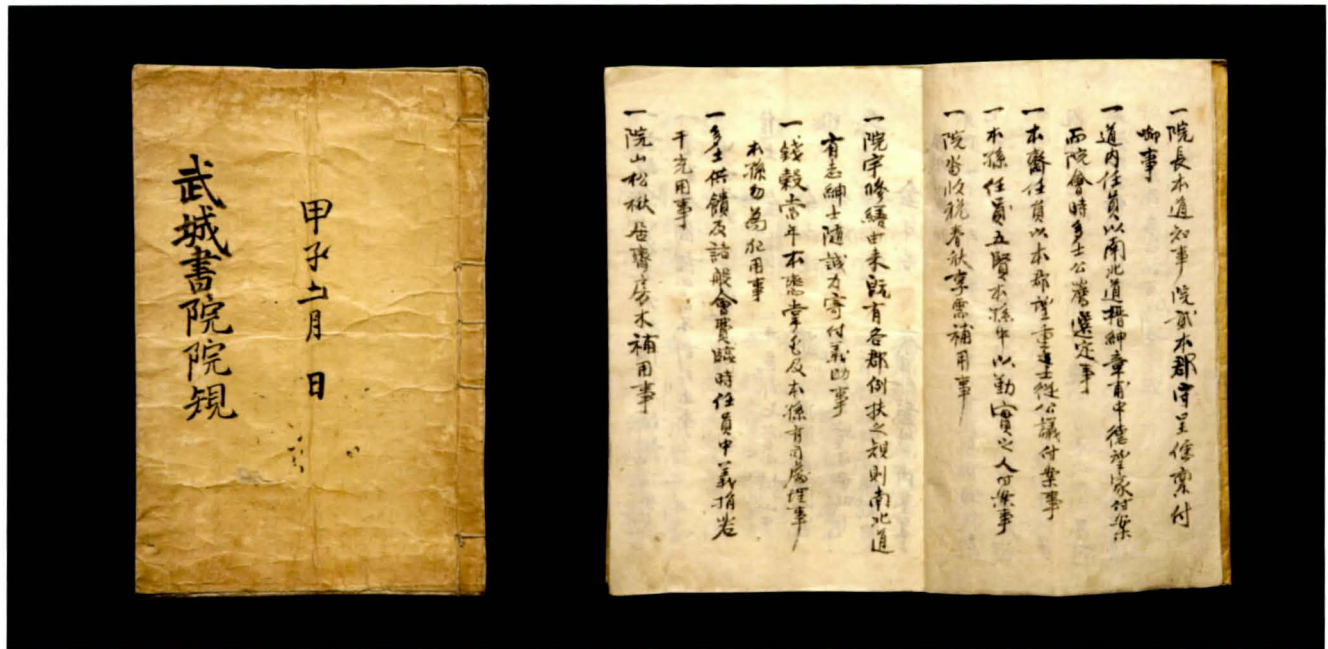
⑦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고 술과 음식을 찾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마지막으로 눈여겨 볼 것은 서원의 역할이다. 서원은 독서하고 서로 학문을 나누는 곳이 지 절대 과거나 관직을 위한 학문을 하는 곳이 아님을 원규에 명시하고 있다. 서원에서는 성현의 경서, 성리에 관한 책이 아니면 보아서는 안 되며, 다만 역사책은 반입을 허락하였다. 하지만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익혀야 함을 명시하였다[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得披讀干院中央丹許人若欲做科業者必習於他處]. 이는 위의 칠계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다.

그런데 1924년에 별도로 제작된 원규는 『무성서원원지』에 수록된 원규와 내용이 다르다. 1924년 원규는 전라남북도의 유회<sup>儒會</sup>에서 선비들이 모여 만든 것으로 당시 참여한 사람들의 지역과 직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직위	지역
김택 <sup>金澤</sup>	진사	정읍군 칠보면
김영술 <sup>金永述</sup>	진사	나주군 봉황면
김환풍 <sup>金煥豊</sup>	진사	정읍군 칠보면
안향섭 <sup>安恒燾</sup>	진사	정읍군 칠보면
김연창 <sup>金年昌</sup>	진사	강진군 작천면
윤학병 <sup>尹學炳</sup>	진사	광주군 비아면
김창술 <sup>金昌述</sup>	의관 <sup>議官</sup>	정읍군 태인면
장백렬 <sup>張柏烈</sup>	유학	정읍군 산외면
민영석 <sup>閔泳碩</sup>	진사	정읍군 산외면



『무성서원원규』

원지를 통해 이 시기 무성서원을 중심으로 하여 전라남북도 유림들의 결속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1928년 전라북도 태인에서 발간된 「김공술<sup>05</sup> 金孔述 등 상서<sup>06</sup>」는 전라남북도 유림들의 학문적 관심과 교류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상서는 당시 무성서원의 유생이었던 김공술·민재호·김창술 등이 전라남도 강진군 움천면에 살았던 故 강창회<sup>05</sup> 姜昌會의 행적을 모성공회<sup>05</sup>에 알려져 포상을 청한 것이기 때문이다. 강창회는 강진군 움천면의 입향조(진주강씨)로 성리학과 도학에 뛰어났고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오직 후학양성에 힘썼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05 모성공회(慕聖公會)는 당시의 전국유림회 단체이다.

06 원지의 전체 내용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원지의 내용<sup>06</sup>을 살펴보면 원장은 도지사, 원이<sup>06</sup> 院貳는 군수로 규정하고 있다[院長本道知事 院貳本郡守呈儒稟付御事]. 또한 도내<sup>06</sup> 道內·본재<sup>06</sup> 本齋·본손<sup>06</sup> 本孫의 임원의 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도내<sup>06</sup> 道內 임원의 경우에는 남북도<sup>06</sup> 南北道의 선비 가운데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안건을 부치고, 원회를 통해 많은 유림들이 천거하는 사람으로 선정하도록 하였다[道內任員以南北道播紳章甫中德望家付案而院會時多士公薦選定事]. 본재 임원은 본군<sup>06</sup> 本郡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사로 공의에 따라 안건에 부치도록 하였고[本齋任員以本郡望重之士從公議付案事], 본손 임원은 오현<sup>06</sup> 五賢의 본손 가운데 근면성실한 사람으로 안건에 부치도록 하고 있다[本孫任員五賢本孫中以勤實之人付案事].

한편 이 당시 서원의 재력은 그다지 탄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규를 통해 살펴보면 남북도의 유지와 인사들에게 정성과 재력에 따라 기부금을 기부할 것<sup>06</sup> 則南北道有志紳士隨誠力寄付義助事, 많은 선비들에 대한 식사대접과 제반 회의비 등에 대해서도 임시로 임원들이 약간의 돈을 기부하여 충당해 쓸 것<sup>06</sup> 多士供饋及諸般會費臨時任員中義捐若干充

用事)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성서원의 임원직제는 『무성서원원지』를 통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무성서원원지』에 수록된 임원 직제와 정원, 각 담당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원 직제	정원	임무
원장 <sup>院長</sup>	1명	서원 업무 총괄
원리장 <sup>院副長</sup>	1명	원장 보좌, 원장 유고시 임무 대행
도내진신강장 <sup>道內摺神講長</sup>	2명	경학 <sup>經學</sup> 과 예절에 대한 교육을 담당
도내유림강장 <sup>道內儒林講長</sup>	2명	
도내진신훈장 <sup>道內摺神訓長</sup>	2명	학문권면과 후생훈도 <sup>後生訓導</sup> 를 담당
도내유림훈장 <sup>道內儒林訓長</sup>	2명	
도내진신재장 <sup>道內摺神齋長</sup>	2명	사무 일체 담당
도내유림재장 <sup>道內儒林齋長</sup>	2명	
본음재장 <sup>本邑齋長</sup>	1명	
강수재재장 <sup>講修齋齋長</sup>	1명	원생 훈육 담당
도내진신집강 <sup>道內摺神執綱</sup>	2명	
도내유림집강 <sup>道內儒林執綱</sup>	2명	
본음집강 <sup>本邑執綱</sup>	1명	대소사 감독
도내진신도유사 <sup>道內摺神都宐司</sup>	1명	
도내유림도유사 <sup>道內儒林都宐司</sup>	1명	
도내진신부유사 <sup>道內摺神副宐司</sup>	1명	도유사 보좌, 도유사 유고시 임무 대행
도내유림부유사 <sup>道內儒林副宐司</sup>	1명	
도내유림직월 <sup>道內儒林直月</sup>	2명	유림 회의가 있을 때 사무 이행
본음직월 <sup>本邑直月</sup>	1명	
도내유림직일 <sup>道內儒林直日</sup>	2명	직월 보좌
본음직일 <sup>本邑直日</sup>	1명	
도내진신장의 <sup>道內摺神掌議</sup>	幾명	서원의 대소사를 논의
도내유림장의 <sup>道內儒林掌議</sup>	幾명	
본음장의 <sup>本邑掌議</sup>	1명	
강수재장의 <sup>講修齋掌議</sup>	1명	
별고장의 <sup>別庫掌議</sup>	1명	
도내진신색장 <sup>道內摺神色掌</sup>	幾명	서원의 일들을 처리 * 별고 색장은 본손 중에서 선정
도내유림색장 <sup>道內儒林色掌</sup>	幾명	
본음색장 <sup>本邑色掌</sup>	2명	
강수재색장 <sup>講修齋色掌</sup>	1명	
별고색장 <sup>別庫色掌</sup>	1명	
서책유사 <sup>書冊宐司</sup>	1명	서책 관리

07 『무성서원원지』 ‘본원임원’ / 김정실, 『조선 후기 서원의 발달과 교육적 기능』(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5~16쪽.

위의 표를 통해 보면 무성서원의 임원 직제는 32개로 나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원장·원이장·강장·훈장·재장·집강·유사·직월·장의·색장 등의 역할 구분을 볼 수 있다. 다양한 직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 무성서원의 규모가 그 만큼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강장講長과 훈장訓長의 직책이 있어 서원 유림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원이 별도로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도내, 본읍 등을 구분하여 유림들의 분포 지역을 가늠할 수 있는데, 도내 임원들은 멀고 가까움에 상관없이 선정하였고, 본읍 임원들은 인근의 유림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렇듯 과거 무성서원의 임원과 직제는 그 규모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으나, 오늘날에는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 급속한 현대화의 과정 속에서 많은 서원의 역할이 축소되었듯이 무성서원 역시 제향기능만 남고 교육기능은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무성서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의전임원儀典任員과 모현회慕賢會가 있다.

의전임원은 서원 제례를 추진하는 임원단이다. 의전임원의 구성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서원의 역할이 제례만으로 축약되고 지역 유림들마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그에 맞게 구성된 임원 직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의전임원은 현재 10명이며, 원장 1명·명예원장 1명·장의 7명·유사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외지에 살고 있더라도 지역 출신인 인물들이다. 의전임원들의 회의는 제례와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만 소집되며, 이 외의 서원 자체에서 주관하는 별도의 유림모임 등은 찾아보기 어렵다. 제례 시기가 가까워지면 제관분방을 위한 장의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도 의전임원만이 참석한다.

총회의 명목으로 열리는 회의는 향사享祀를 지낸 후 실시되는데, 향사 때가 되어야 그나마 많은 유림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이다. 총회 때는 무성서원 예산에 관한 내용이 거론되지만, 무성서원은 재정적인 부분도 취약하기 때문에 크게 논의될 안건이 없는 편이다.

그래도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재목록에 등재된 9개 서원 중의 하나가 되면서 분위기가 변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서원의 보존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새로운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모현회이다. 모현회는 2011년 10월 25일 무성서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이회는 노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서원의 운영 위기를 극복하고, 서원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함께 노력할 유림들을 규합하는 모임이다. 무성서원 측은 모현회를 통해서 그 동안 무성서원의 제례와 운영 등에 많이 참여한 사람들의 연대감을 높이고, 더불어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여 조직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모현회의 사업 및 활동으로는 ① 무성서원에 배향된 선현들의 유덕을 대외에 선양하는 학술연구대회의 개최 ② 지역사회에서 인륜도의 정신을 진작하기 위해 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교양활동 전개 ③ 유학정신을 높이기 위해 수시로 교양강좌를 개최 ④ 기타 무성서원의 운영에 도움이 되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모현회에서 주관하는 정기 총회는 연 1회, 향사

날에 개최된다. 이 총회는 기존 총회를 토대로 한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으며, 기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회를 통해서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사업계획의 승인, 기타 주요사항 등을 의결한다.

모현회의 임원은 고문·지도위원·명예회장 1명·회장 1명·부회장·이사 15명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참여 20명·감사 2명·사무국장 1명 등으로 구성된다.<sup>08</sup> 이 중 고문·지도위원·부회장은 명수가 확정되지 않고 약간 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있다. 명예회장은 원로로서 회장의 자문역할을 한다. 회장은 본 회의 대표이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의 의장이 된다. 현재 모현회의 회장은 무성서원 원장이 겸임하고 있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에 회장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모현회의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며,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소임을 한다.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특히 예산의 출납 관리와 모임 안내장 발송 등을 수행한다.

이사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회장이 당연직 의장이 된다. 이사회에서는 ① 회원의 가입·탈퇴·재명·임원의 임면에 관한 일 ②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일 ③ 예산·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일 ④ 총회에서 위임받은 일 ⑤ 기타 중요한 일 등을 논의한다.

이 외에도 모현회 회원들은 무성서원장을 보좌하며, 향사 때에는 제관의 소임을 맡는다. 하지만 제례에 대한 업무에는 일체 참여하지는 않는다. 제례는 의전임원의 소임으로 독자성을 두는 것과 동시에 기존 임원 체제의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08 현재(2013년 3월) 명예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5명, 고문 2명, 지도위원 8명, 이사 10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간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전승과 지속

무성서원은 교육기능이 퇴색하면서 제향기능만 유지되고 있다. 현재 다른 서원에서도 마찬가지로 현황을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 제례도 1년에 춘향사 1회만 봉행하는 실정이다. 정읍에는 9개의 서원이 있어서 시에서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무성서원은 지금까지 시의 지원없이 자력으로 전승을 이어가는 실정이다. 현재 운영비는 위토에서 거둔 소작료가 전부다.

하지만 무성서원은 모현회 등의 조직을 재정비 하면서 서원의 보존과 유교문화의 전승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서원 본연의 기능인 교육부분도 부활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현회를 통해 인근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교육 장소를 임대해주는 소극적인 지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적극적인 교육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구한말 을사조약에 분개해 일어난 '병오창의(丙午倡義)'의 뜻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의 지속적인 행사 개최 역시 무성서원의 전통과 의미를 계승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장의회의에 참석한 의전임원

書院

陽曆  
西曆十月

文藝時習書神

興  
佳業日新孝悌忠和興





## 참고자료

### 무성서원지 수록 원규

#### 一. 人齊之規無論長幼貴賤有志讀書爲學者皆可入院書

입재入齋의 규약規約은 나이와 귀천을 불문하고 뜻을 가지고 독서하여 학문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모두 서원에 들어올 수 있다.

#### 一. 每有朔望齊任率諸生具巾服詣開中門焚香再拜若齊任不在則齊中年少長者爲之雖非朔望若諸生自新至或自院辭歸則必於廟庭再拜

매월 삭망朔望에는 재임齋任이 제생諸生을 이끌고 두건頭巾과 의복을 갖추고 중문中門에 나아가 열고서 분향재배焚香再拜한다. 만약 재임이 없으면, 재중齋中에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 한다. 비록 삭망이 아니더라도 만약 제생이 외부에서 새로 왔거나 혹은 서원을 떠나 돌아간다면 반드시 묘정廟庭에서 재배한다.

#### 一. 每日晨起整寢具疊掃室中使齊直掃庭皆盟櫛衣冠

매일 새벽에 일어나 침구寢具를 정리하고, 방 안을 청소하며, 재직齋直으로 하여금 뜰을 쓸게 하며, 모두들 세수하고 빗질을 하고 의관衣冠을 갖춘다.

#### 一. 平日皆以巾服詣廟不開中門只再拜出外處分立東西相向行揖讓禮各就齊室

평일에는 모두 두건과 의복을 갖추고 사당을 배알하되, 중문을 열지 않고 재배만 한다. 바깥으로 나가서는 동서東西로 나누어 서서 서로 마주보고 읍양례揖讓禮를 행한 뒤에 각자 재실齋室로 나아간다.

#### 一. 讀書必整容危坐專心致志務窮義理無得相顧談話

책을 읽을 때에는 반드시 용모를 정돈하고 바르게 앉아 마음을 전일하게 하고 뜻을 다하여 의리義理를 힘써 궁리하되, 서로 돌아보며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 一. 居處必以便好之地推讓長者無得先自擇占長者出入時少者必起

거처할 때에는 반드시 편하고 좋은 자리는 연장자에게 양보하고, 먼저 자신이 자리를 선택하여 차지하지 말며, 연장자가 출입할 때에는 젊은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

一. 案書冊硯筆物頓置皆有常處無或散亂不得以烟茶唾啖戲事點汙牆壁亦不得着履升堂  
책상, 서책, 붓, 베풀 등의 물건을 둘 때에는 모두 일정한 장소를 두어 혹시라도 어지럽히지 말아야 한다. 담배, 타액唾液, 장난 등으로 창문과 벽을 더럽혀서는 안 되며, 신을 신고 당<sup>堂</sup>에 올라서도 안 된다.

一. 常時恒恒整衣冠無得褻衣自便亦不得着華過近奢之服必以九容持身九思存心如對嚴師終身不懈

평상시에 항상 의관을 단정히 하되, 평상복을 편하게 입지 말 것이며, 화려함이 지나쳐 사치에 가까운 옷을 입어서도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구용<sup>九容</sup>으로써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구사<sup>九思</sup>로써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기를 마치 엄한 선생님을 마주 대하듯이 하여 평생토록 태만하지 않아야 한다.

一. 非聖賢之書性理之說則不得披讀干院中史丹許人若欲做科業者必習於他處

성현의 경서<sup>經書</sup>와 성리<sup>性理</sup>에 관한 책이 아니면 서원 안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역사책은 반입을 허락한다. 과거 시험을 공부하고자 하는 자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익혀야 할 것이다.

一. 凡作文必皆本之義理無得雜以異端詭怪之說作字必端嚴楷正無放意潦草

무릇 글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의리에 근본을 두고, 이단<sup>異端</sup>의 괴이한 학설을 뒤섞지 말아야 한다. 글씨를 쓸 때에는 반드시 단정하고 정해<sup>正楷</sup>하게 쓰고, 제멋대로 휘갈겨 쓰지 말아야 한다.

一. 凡言語必慎重非文子禮法則不言以夫子不慥力亂神爲法且以范氏七戒存心寓目七戒一不言朝廷利害邊報差除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三不言衆人所作過之事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言財利多少厭貧求富六不言淫媒戲慢評論女色七不言求覓人物干索酒食

무릇 말은 반드시 신중하게 하되, 문자<sup>文字</sup>와 예법<sup>禮法</sup>에 관한 것이 아니면 말을 하지 말아서 부자<sup>夫子</sup>가 괴이한 것과 용력<sup>勇力</sup>에 관한 것과 패란<sup>悖亂</sup>한 것과 귀신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으로써 법도를 삼으며, 범씨<sup>范氏</sup>의 일곱 가지 경계<sup>警戒</sup>를 마음에 두고 눈여겨보아야 한다. -일곱 가지 경계: 첫째 조정<sup>朝廷</sup>의 이해와 변방<sup>邊方</sup>의 보고<sup>報告</sup>와 관리의 파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둘째 주현<sup>州縣</sup> 관원의 장단점과 잘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셋째 여러 사람이 함께 범한 잘못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넷째 관직에 출사<sup>出仕</sup>하는 일과 시속<sup>時俗</sup>을 좇고 세력에 붙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다섯째 재물과 이익의 많고 적음과 빈한<sup>貧寒</sup>함을 싫어하고 부유함을 추구하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여섯째

음탕하고 버릇없고 희롱하고 불경<sup>不敬</sup>한 일과 여색<sup>女色</sup>에 대한 평론<sup>評論</sup>을 말하지 않는다. 일곱째 남에게 물건을 요구하고 술과 음식을 찾는 일을 말하지 않는다.-

- 一. 凡朋友務相和敬相規以失相責以善無得挾貴挾富挾聞見以驕儕輩且不得譏侮以相戲戲  
무릇 붕우<sup>朋友</sup> 간에는 온화와 공경으로 대하기를 힘쓰고, 잘못을 서로 바로잡아 주며, 선행<sup>善行</sup>을 서로 권장한다. 지체가 높은 것을 믿거나, 부유한 것을 믿거나, 견문<sup>見聞</sup>이 많은 것을 믿고서 동료들에게 교만하게 굴어서는 안 된다. 또한 기롱하거나 모욕을 주면서 서로 놀려서도 안 된다.

- 一. 書籍不得出門酒色不得入門雜技不得行刑罰不得用  
서적<sup>書籍</sup>은 서원의 문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되며, 주색<sup>酒色</sup>은 서원의 문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는 안 되며, 잡기<sup>雜技</sup>는 해서는 안 되며, 형벌<sup>刑罰</sup>은 써서는 안 된다.

- 一. 昏後明燭讀書夜久乃寢  
어두워진 뒤에는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되, 밤이 깊어진 뒤에야 잠자리에 든다.

- 一. 自晨起至夜寢一日之間必有所事必有暫息或靜坐存心或講論義理無非學業上喫緊有於此即非學者  
새벽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루 동안 반드시 하는 일을 두어서 마음이 잠시라도 나태해서는 안 된다.<sup>09</sup> 책을 읽거나,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다듬거나, 의리를 강론하는 등의 일은 학업 상 긴요한 공부가 아닌 것이 없다. 여기서 벗어나는 점이 있다면<sup>10</sup> 학자가 아니다.

09 마음이……된다: 원문에는 '必有暫息'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통하지 않으므로 『율곡전서(栗谷全書)』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에 '心不暫怠'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10 여기서……있다면: 원문에는 '有於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이 통하지 않으므로 『율곡전서』 「은병정사학규」에 '有違於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違' 한 글자를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 一. 有時歸家切宜勿念院中之習治心檢身應事接物須要一一務盡道理如或入齋修飭出齋放倒則是慄(?)二心者也不可容接  
때로 귀가<sup>歸家</sup>하더라도 서원 안에서의 습관을 절대 잊지 말아서 마음을 다스리고 몸을 검속<sup>檢束</sup>하며 일을 응대하고 사물을 응접함에 있어서 하나하나마다 도리를 다하려고 힘써야 한다. 만약 입재<sup>入齋</sup>해서는 행실을 검직<sup>檢飭</sup>하다가 출재<sup>出齋</sup>해서는 방탕하게 행동한다면 이것은 두 마음을 가진 자이니,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무성서원 院規(1924) 별책

11 유품(儒稟)·유회(儒會)에 올리는 품의(稟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 一. 院長本道知事院貳本郡守呈儒稟付脚事

원장(院長)은 본도(本道)의 도지사(道知事)로, 원이(院貳)는 본군(本郡)의 군수(郡守)로 유품(儒稟)<sup>11</sup>을 올려 직함(職銜)에 부칠 것

12 진신 장보(縉紳章甫)·진신은 원래 옛날에 관리들이 홀을 끼우기 위해 매던 허리띠를 가리키는데, 후대에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장보는 옛날에 선비들이 쓰던 관(冠)의 일종으로, 이후에 선비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 一. 道內任員以南北道縉紳章甫中德望家付案而院會時多士公薦選定事

도내(道內) 임원(任員)은 남북도(南北道)의 진신 장보(縉紳章甫)<sup>12</sup> 가운데 덕망(德望)이 있는 사람으로 안건(案件)에 부치고 원회(院會) 때에 다사(多士)<sup>13</sup>가 공천(公薦)하여 선정할 것

13 다사(多士)·본래 많은 훌륭한 선비나 백관(百官)을 가리키는 말인데, 여기서는 서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인사들을 가리킨다.

### 一. 本齋任員以本郡望重之士從公議付案事

본재(本齋)의 임원은 본군에서 신망(信望)이 두터운 인사(人士)로 공의(公議)에 따라 안건에 부칠 것

### 一. 本孫任員五賢本孫中以勤實之人付案事

본손(本孫) 임원은 오현(五賢)의 본손 가운데 근실(勤實)한 인사로 안건에 부칠 것

### 一. 院畚收稅春秋享需補用事

원답(院畚)의 수세(收稅)는 춘추향(春秋享)의 제수(祭需)에 보태어 쓸 것

### 一. 院宇修繕由來既有各郡例扶之規則南北道有志紳士隨誠力寄付義助事

원우(院宇)의 수선(修繕)은 본래 이미 각 군(郡)에서 으레 보조하는 규례가 있으니, 남북도의 유지(有志) 인사는 정성과 재력(財力)에 따라 의조(義助)<sup>14</sup>를 기부할 것

14 의조(義助)·기부금(寄附金) 또는 의연금(義捐金)을 가리킨다.

### 一. 錢穀當年本齋掌色及本孫有司處理事本孫勿爲犯用事

돈과 곡식은 당년 본재의 장색(掌色)과 본손 유사(本孫有司)가 처리할 것이며, 본손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 一. 多士供饋及諸般會費臨時任員中義捐若干充用事

다사에 대한 식사 대접과 제반(諸般) 회의비는 임시로 임원들이 약간의 돈을 의연(義捐)하여 충당해 쓸 것

一. 院山松楸居齋房木補用事

15 원산(院山)의 송추(松楸): 서원 소유의 산림(山林)에서 자라는 나무들을 가리킨다.

원산院山의 송추松楸<sup>15</sup>는 거재居齋의 방목房木<sup>16</sup>에 보태어 쓸 것

16 방목(房木): 무엇을 가리키는 지 자세하지 않으나, 서원건물의 증축이나 수리에 쓰이는 목재(木材)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一. 諸般褒狀參考本狀後從公議讚揚事

제반 포장褒狀<sup>17</sup>은 본장本狀을 참고한 뒤에 공의에 따라 찬양讚揚할 것

17 포장(褒狀): 효자, 열녀 등에 대한 표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一. 書籍居齋講習而不許外出事

서적書籍은 거재에서 강습講習하고,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

甲子二月 日 南北道儒會多士

갑자 2월 일 남북도 유회儒會 다사



### 참고문헌

- 박익환, 「태인지방의 고현동약고」, 『변태섭박사와갑기념사학논총』(삼영사, 1985)
- 이해준 외, 『조선 후기 향약연구』(민음사, 1990)
- 이해준, 「조선시대 香徒와 村契類 촌락조직」 『역사민속학』 창간호(역사민속학회, 1991)
- 전북향토문화연구회, 『고현동약』(1992)
- 이강오, 「태인 고현 향약에 대하여」 『고현동약』(1992)
- 李眞榮, 「동학농민전쟁과 전라도 태인현의 재지사족」(전북대학원박사논문, 1996)
- 손윤희, 「무성서원의 건립과 변천에 관한 연구」(고려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최만봉, 「무성서원의 입지와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회지』 22-4호(한국조경학회, 2004)
- 정읍시, 『무성서원종합정비 기본계획』(길 건축사, 2007)
- 송만오, 「무성서원 소장자료의 종류와 그 내용」(서원학회 워크숍 발제, 2009)
- 이계형, 「무성서원과 최익현 의병의 성격」(서원학회 워크숍 발제, 2009)
- 박종배,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의 강습례에 관한 일 고찰」, 『서원학보』 제 1집(한국서원학회, 2011)

東

簋

神位

豆 西

鹿脯

栗黃燭

爵

魚脯 刑鹽

簋稻

乾棗

古簋

簋黍

圖

承 醴 牲 俎

香盒 燭

爵

圖簋

南

魚鹽

菁菹

鹿鹽

芹菹 燭

爵

武城書院祭禮笏記

維歲次某年某月某朔干支 某 敢昭告于

靈川申先生伏以十訓教士三事為治澤在斯民久而敬之茲值

仲丁精裡是宜謹以牲幣庶品式陳明薦以不憂軒丁先生訥菴

宋先生默齋鄭先生誠齋金先生鳴川金先生配尚 饗

무성서원홀기

鹿脯

魚脯

簋稻

簋黍

魚鹽  
鹿鹽

栗黃

燭

爵

乾麥

原

腥

香

醢

爵

牙簋

圓簋

菁菹

芹菹

燭

爵

神位

# 무성서원제례홀기(武城書院祭禮笏記)

- 獻官以下諸執事學生 各服其服 皆就門外位(헌관이하제집사학생 각복기복 개취문외위)  
헌관 이하 제집사와 학생은 각기 복장을 갖추고 모두 문외위에 나아가시오
- 掌饌盥洗入陳設(장찬관세입진설)  
장찬관은 손을 씻고 들어가 진설하시오
- 贊引引初獻官升自東階 點視陳設(찬인인초헌관승자동계 점시진설)  
찬인은 초헌관을 동계로 올라가 진설을 점검하도록 인도하시오
- 祝開櫝(축개독)  
축은 독을 여시오
- 仍啓簠簋籩豆點燭(잉게보래변두점촉)  
이어서 보래와 변두의 뚜껑을 열고 초에 불을 붙이시오
- 皆降復門外位(개강복문외위)  
모두 문외위로 내려가시오
- 執禮祝贊者贊引先入階間 北向西上 再拜(집례축찬자찬인선입계간 북향서상 재배)  
집례, 축, 찬자와 찬인은 먼저 계간 배위에 들어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쪽을 향해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學生及諸執事入就階間 北向西上 再拜(학생급제집사입취계간 북향서상 재배)  
학생 및 제집사는 계간 배위에 들어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쪽을 향해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諸執事詣盥洗位 盥手帨手 各就位(제집사에관세위 관수세수 각취위)  
제집사는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고 각자 봉무할 자리에 들어가시오
- 奉爵詣爵洗位 洗爵(봉작예작세위 세작)  
봉작은 작세위에 나아가 작을 씻으시오
- 奉置于罇所站上(봉치우준소점상)  
작을 받들어 준소의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시오
- 贊引引諸獻官入就階間 北向西上(찬인인제헌관입취계간 북향서상)  
찬인은 제헌관을 인도하여 계간 배위에 들어가 서쪽을 상위로 하여 북쪽을 향해 서시오
- 贊引俛進于初獻官之左 請行事(찬인면진우초헌관지와 청행사)  
찬인은 몸을 구부려 초헌관 왼쪽에 나아가 행사하기를 청하시오
- 三獻官皆再拜(삼헌관개재배)  
삼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上香奠幣禮(상향전폐례)

- 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 北向立(찬인인초헌관에관세워 북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 盥手帨手(관수세수)  
손을 씻으시오
- 引詣文昌侯孤雲崔先生神位前跪(인예문창후고운최선생신위전궐)  
인도하여 문창후 고운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爐升(봉향봉로승)  
봉향과 봉로는 오르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升(축승)  
축은 오르시오
- 祝奉幣籠授獻官(축봉폐비수헌관)  
축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에불우헌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축봉폐비수헌관)  
축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訥庵宋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에눌암송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눌암 송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축봉폐비수헌관)  
축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축봉폐비수헌관)  
축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묵재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죽봉폐비수헌관)  
죽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성재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죽봉폐비수헌관)  
죽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명천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香奉香盒(봉향봉향합)  
봉향은 향합을 받드시오
- 奉爐奉香爐(봉로봉향로)  
봉로는 향로를 받드시오
- 獻官三上香(헌관삼상향)  
헌관은 향을 세 번 사르시오
- 祝奉幣篚授獻官(축봉폐비수헌관)  
축은 폐비를 받들어 헌관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전우신위전)  
신위전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 降復位(찬인인초헌관 강복위)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初獻禮(초헌례)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于其左(봉작집작입우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罇작주)  
사준은 먹(뎡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文昌侯孤雲崔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문창후고운최선생신위전궤)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문창후 고운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奠爵升(봉작전작승)  
봉작과 전작은 오르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 少退跪(헌관부복흥 소퇴궤)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 祝進獻官之左 執祝文跪讀(축진헌관지와 집축문궤독)  
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꿇어앉아 축문을 읽으시오
- 諸生皆跪(제생개궤)  
제생은 모두 무릎을 꿇어앉으시오
- 訖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홀 찬인인초헌관예준소 서향립)  
독축이 끝나면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궤작주)  
사준은 궤(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불우헌정선생신위전궤)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궤작주)  
사준은 궤(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訥庵宋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눌암송선생신위전궤)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눌암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덥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맥작주)  
사준은 맥(덥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예묵재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에성재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초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初獻官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초헌관에명천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一站(전우신위전서단제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첫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仍詣盥洗位 盥手洗手(찬인인아헌관잉예관세위 관수세수)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詣罇所西向立(예준소서향립)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文昌侯孤雲崔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문창후고운최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문창후 고운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립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불우헌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訥庵宋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눌암송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눌암 송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뿔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립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罇작주)  
사준은 먹(뿔)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묵재정선생신위전궤)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립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罇작주)  
사준은 먹(뿔)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성재김선생신위전궤)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을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亞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아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립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罇작주)  
사준은 맥(罇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亞獻官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명천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아헌관을 인도하여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을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二站(전우신위전서단제이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두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仍詣盥洗位 盥手洗手(찬인인종헌관잉예관세위 관수세수)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에 나아가 손을 씻으시오
- 詣罇所西向立(예준소서향립)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립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덮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文昌侯孤雲崔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에문창후고운최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문창후 고운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덮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에불우헌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訥庵宋先生神位前跪(찬인인아헌관예놀암송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놀암 송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예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에묵재정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가서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罇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에성재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終獻官詣罇所 西向立(찬인인종헌관에준소 서향립)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奉爵執爵立其左(봉작집작입기좌)  
봉작은 작을 들고 그 왼쪽에 서시오

- 司罇舉露酌酒(사준거먹작주)  
사준은 먹(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 贊引引終獻官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찬인인종헌관에명천김선생신위전궐)  
찬인은 종헌관을 인도하여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奉爵以爵授獻官(봉작이작수헌관)  
봉작은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之以授奠爵(헌관수지이수전작)  
헌관은 작을 받아 전작에게 주시오
- 奠于神位前西端第三站(전우신위전서단제삼점)  
전작은 신위전 서단 세 번째 점(받침)에 올리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三獻官皆再拜(삼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拜興拜興平身(국궁배흥배흥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飲福禮(음복례)

- 贊引引初獻官詣飲福位 西向跪(찬인인초헌관에음복위 서향궐)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 祝詣罇所(축예준소)  
축은 준소에 나아가시오
- 以爵酌福酒(이작작복주)  
작에 복주를 따르시오
- 掌饌以俎分取神位前胙肉(장찬이조분취신위전조육)  
장찬은 도마에 신위전 조육을 조금씩 덜어내시오
- 祝詣獻官之左(축예헌관지좌)  
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시오
- 跪授爵(궐수작)  
무릎을 꿇고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啐爵(헌관수취작)  
헌관은 작을 받아 다 마시시오
- 以爵授奉爵還置玷(이작수봉작환치점)  
작을 봉작에게 주어 점상에 올려놓으시오
- 掌饌跪以胙授獻官(장찬궤이조수헌관)  
장찬은 꿇어앉아 조육을 헌관에게 주시오
- 獻官受胙 還授執事置于玷(헌관수조 환수집사치우점)  
헌관은 조육을 받아 집사에게 주어 점 위에 놓으시오
- 獻官俯伏興(헌관부복흥)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 贊引引獻官 降復位(찬인인헌관 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獻官皆再拜(헌관개재배)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 拜興 拜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撤籩豆(철변두)

- 祝入撤籩豆(죽입철변두)  
죽은 들어가 철변두하시오
- 學生皆再拜(학생개재배)  
학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 鞠躬 拜興 拜興 平身(국궁 배 흥 배 흥 평신)  
(구령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일어남)

#### 望瘞禮(망예례)

- 贊引引初獻官詣望瘞位 北向立(찬인인초헌관예망예위 북향립)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예 위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시오
- 祝取祝及幣降自西階(죽취죽급폐강자서계)  
죽은 죽과 폐를 거두어 서계로 내려가시오
- 瘞于坎(예우감)  
감(구덩이)에 묻으시오
- 或燒(혹소)  
태우시오

- 贊引引獻官 降復位(찬인인헌관 강복위)  
찬인은 헌관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 祝進獻官之左 白禮畢(축진헌관지와 백예필)  
축은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예필을 아뢰시오
- 退出(퇴출)  
퇴출하시오
- 贊引引初獻官出(찬인인초헌관출)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 亞獻官以下次隨出(아헌관이하차수출)  
아헌관 이하 차례로 따라 나가시오
- 學生出(학생출)  
학생도 따라 나가시오
- 執禮祝及諸執事俱就階間拜位皆再拜而出(집례축급제집사구취계간배위개재배이출)  
집례, 축 및 제집사는 모두 계간 배위에 내려가 모두 재배하고 나가시오
- 祝闔櫝(축합독)  
축은 독을 닫으시오
- 掌饌撤饌(장찬철찬)  
장찬은 철찬하시오
- 闔門遂退(합문수퇴)  
문을 닫고 나가시오

# 무성서원제례홀기(武城書院祭禮笏記[舊])

- 獻官及執事前期三日致祭(헌관급집사전기삼일치제)  
헌관과 집사는 전기 삼일간 치제한다
- 行事日四更一點祝以下開櫬開蓋(행사일사경일점축이하개독개개)  
행사일 사경일점에 축 이하 개독하고 제기의 뚜껑을 연다
- 贊引引初獻官點視陳設 訖還出(찬인인초헌관점시진설 환환출)  
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진설을 점검하시오
- 獻官及諸執事俱就門外位(헌관급제집사구취문외위)  
헌관 및 제집사는 모두 문외위에 나아가시오
- 執禮贊引入自東門先就拜位 再拜(집례찬인입자동문선취배위 재배)  
집례와 찬인은 동문으로 들어가 먼저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시오
- 贊引引諸生入就拜位 再拜(찬인인제생입취배위 재배)  
찬인은 제생을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가 재배하시오
- 贊引引獻官就門外位(찬인인헌관취문외위)  
찬인은 헌관을 문외위에 인도하시오
- 祝以下皆再拜(축이하개재배)  
축 이하 모두 재배하시오
- 各就位(각취위)  
각자 자리에 나아가시오
- 贊引引獻官入就位(찬인인헌관입취위)  
찬인은 헌관을 자리에 인도하시오
- 獻官及諸生皆再拜(헌관급제생개재배)  
헌관과 제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 初獻禮(초헌례)
  - 贊引進初獻官之左白有司謹具請行事(찬인진초헌관지좌백유사근구청행사)  
찬인은 초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행사하기를 아뢰시오
  - 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찬인인초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초헌관을 관세위에 인도하시오
  - 引詣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躡所西向立(인예문창공최선생영천신선생준소서향립)  
문창공 최선생, 영천 신선생 준소에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引詣文昌公崔先生神位前跪(인예문창공최선생신위전궤)  
문창공 최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少退跪(소퇴궤)  
뒤로 조금 물러나시오
- 讀祝文(독축문)  
축문을 읽으시오
- 引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인예영천신선생신위전궤)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少退跪(소퇴궤)  
뒤로 조금 물러나시오
- 讀祝文(독축문)  
축문을 읽으시오
- 引詣配位罇所 東向立(인예배위준소 동향립)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동향하여 서시오
- 引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인예불우헌정선생신위전궤)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訥菴宋先生神位前跪(인예눌암송선생신위전궤)  
눌암 송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인예묵재정선생신위전궐)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인예성재김선생신위전궐)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인예명천김선생신위전궐)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三上香 俯伏興(삼상향 부복흥)  
삼상향하고 일어서시오
- 奠幣 俯伏興(전폐 부복흥)  
전폐하고 일어서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인도하여 자리에 돌아가시오

亞獻禮(아헌례)

- 贊引引亞獻官詣盥洗位(찬인인아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아헌관을 관세위에 인도하시오
- 訖詣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罇所西向立(홀예문창공최선생영천신선생준소서향립)  
문창공 최선생, 영천 신선생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引詣文昌公崔先生神位前跪(인예문창공최선생신위전궐)  
문창공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인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인도하여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配位罇所 東向立(인예배위준소 동향립)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동향하여 서시오
- 引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인예불우헌정선생신위전궐)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訥菴宋先生神位前跪(인예눌암송선생신위전궐)  
눌암 송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인예묵재정선생신위전궐)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인예성재김선생신위전궐)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인예명천김선생신위전궐)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인도하여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終獻禮(종헌례)**

- 贊引引終獻官詣盥洗位(찬인인종헌관예관세위)  
찬인은 종헌관을 관세위에 인도하시오
- 訖詣文昌公崔先生靈川申先生罇所西向立(홀예문창공최선생영천신선생준소서향립)  
문창공 최선생, 영천 신선생 준소에 나아가 서쪽을 향해 서시오
- 引詣文昌公崔先生神位前跪(인예문창공최선생신위전궐)  
문창공 최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靈川申先生神位前跪(인예영천신선생신위전궐)  
영천 신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配位罇所 東向立(인예배위준소 동향립)  
배위 준소에 인도하여 동향하여 서시오
- 引詣不憂軒丁先生神位前跪(인예불우헌정선생신위전궐)  
불우헌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訥菴宋先生神位前跪(인예눌암송선생신위전궐)  
눌암 송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默齋鄭先生神位前跪(인예묵재정선생신위전궐)  
묵재 정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 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誠齋金先生神位前跪(인예성재김선생신위전궐)  
성재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詣鳴川金先生神位前跪(인에명천김선생신위전궐)  
명천 김선생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 奠爵 俯伏興(전작 부복흥)  
전작하고 일어서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飲福受胙(음복수조)**

- 贊引引初獻官升詣飲福位 西向跪(찬인인초헌관승예음복위 서향궐)  
찬인은 초헌관을 음복위에 인도하여 서쪽을 향해 꿇어앉으시오
- 奉爵俯伏興平身(봉작부복흥평신)  
봉작은 일어서시오
- 引降復位(인강복위)  
자리에 돌아가시오
- 獻官及諸生皆再拜(헌관급제생개재배)  
헌관과 제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 訖祝闔櫝(홀축합독)  
축은 합독하시오

**望瘞禮(망예례)**

- 贊引引獻官詣望瘞位(찬인인헌관예망예위)  
찬인은 헌관을 망예위에 인도하시오
- 可瘞焚祝(가예분축)  
분축하여 땅에 묻으시오
- 禮畢(예필)  
예를 마칩니다
- 獻官諸生次次出(헌관제생차차출)  
헌관과 제생은 차례로 나가시오
- 執禮贊引再拜出自西門(집례찬인재배출자서문)  
집례와 찬인은 재배하고 서문으로 나가시오